

# 2007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결과

## 1. 평가개요

- 사 업 명 : 2007년도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주 최 : 문화관광부
- 주 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평가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2. 평가목적

-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 평가대상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마련과 평가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국고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공연예술의 균형적 발전과 공연예술 행사의 질적 성장 유도, 국민의 문화 향유 여건 개선, 예술계 소통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3. 평가방법

### 1)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방법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담당	비 고
	계획	운영	성과		
현장평가 (70%)	-	40점	30점	평가위원	평가위원이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지표로 구성
서면평가 (30%)	10점	15점	5점	평가위원 문화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부분 정량적 평가로 구성되나,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해 일부분 정성적 평가지표로 구성
계	10점	55점	35점		

※ 평가유형에 따라 배점에 약간의 차이 있을 수 있음.

- 현장평가는 평가대상사업 특성이 반영된 유형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대상사업 주최 측이 제출한 서면자료(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내용을 검토한 후 행사기간 중 평가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행사 현황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팀별 평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 서면평가는 평가대상사업 주최 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며, 팀 별 평가회의 시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 2) 평가척도기준

- 현장평가
  - 현장평가는 5점 척도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이 해당 항목에 점수 부여
  - 행사별 평가위원 점수 합산 후 평균점수 도출

※ 현장평가척도기준(예시)

척 도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미흡
가중치	100%	90%	80%	70%	60%
예 시	4 (4 ×1)	3.6 (4 ×0.9)	3.2 (4 ×0.8)	2.8 (4 ×0.7)	2.4 (4 ×0.6)

- 서면평가
  - 서면평가는 평가대상사업이 제출한 자료(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평가점수 부여
  - 행사별 서면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산정. 단, 평가위원 담당 평가항목(사업계획 부분)의 경우 행사별 평가위원 점수 합산 후 평균점수를 도출. 나머지 서면평가 항목(사업운영, 성과부분) 점수와 합산하여 총점 산정

※ 서면평가척도기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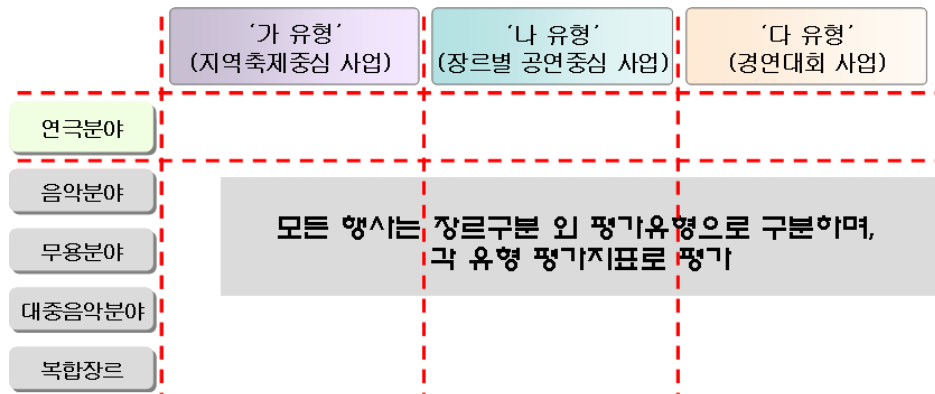
척 도	예	아니오
가중치	100%	0%

※ 서면평가는 위의 척도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위원 담당 평가항목(사업 계획 부분)의 경우 가치판단이 요구되므로 현장평가척도기준을 적용

### 3) 평가지표유형

#### ① 평가지표 유형구분

<평가유형구분>



- 행사별 특성에 따라 '가' 유형(지역축제 사업), '나' 유형(장르별 공연 중심 사업), '다' 유형(경연대회 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
- 일부 행사의 경우 팀 사전회의 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유형을 재설정할 수 있음.

#### ※ 유형별 해당행사 및 평가기준

- '가' 유형(지역축제 사업)의 경우 지역 연계성, 축제에 적합한 프로그램 구성력 등 축제 운영의 전문성을 중점으로 평가
- '나' 유형(장르별 공연중심 사업)의 경우 해당분야 기여도, 예술적 완성도, 공연기획의 전문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
- '다' 유형(경연대회 사업)의 경우 심사기준과 방식의 적절성, 심사위원 선정의 적절성, 해당분야 기여도, 경연자 참여도를 중점으로 평가

## **4. 평가결과**

※ 행사별 평가결과(평가점수, 총평)는 붙임자료 참조

# **연극분야**

## **(19개 사업)**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제19회 거창국제연극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19회 거창국제연극제
- 기 간 : 2007년 7월 27일 ~ 8월 15일
- 장 소 : 거창군 수송대 일원의 야외극장 및 거창문화센터
- 주 최 : 거창군, (사)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 주 관 :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7. 27 ~ 8. 15) → 서면평가(2007. 9.) → 평가회의(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0/10.0	11.0/15.0	4.0/5.0	23.0/30.0
현장평가		33.9/41.0	23.6/29.0	57.5/70.0
평가결과	8.0/10.0	44.9/56.0	27.6/34.0	80.5/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6/7.0
	2.중장기 계획여부	2.4/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1.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0.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4.0/5.0
평가결과		23.0/30.0

◦ 현장평가결과(가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1/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3.8/5.0
	3.홍보의 적합성	4.4/5.0
	4.사업충실도	4.7/6.0
	5.공간구성의 적절성	4.5/5.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4.6/6.0
	7.관객 서비스	5.8/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8/7.0
	2.예술교류 기여도	3.8/5.0
	3.예술적 완성도	4.0/5.0
	4.관객 참여도	5.2/6.0
	5.지역연계성	4.8/6.0
평가결과		57.5/70.0

## 4. 총평

### □ 사업계획

거창국제연극제는 그 동안 외형적인 성장과 축제 운영의 조직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질적 변화를 연구하고 실천해야할 때를 맞이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거창국제연극제는 ‘야외’ 연극제가 가능한 공간(수송대 야외극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신성이 있지만 기획

의 방향과 목표, 내용의 측면에서 거창연극제만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참신함과 창의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질적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예술적 방향성과 철학이 필요하다.

현재 거창국제연극제는 질적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예술적 방향성과 철학이 필요하다. 거창국제연극제의 목적인 1) 야외연극축제의 성공 2) 지역연극의 세계화 3) 미래의 독창적 연극 개발 4) 연극축제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축제가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향성과 철학을 발견하기 어렵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데 성공한 것은 뛰어난 자연환경이 한 몫을 했을 것인데, 그러한 자연 환경에 걸맞은 축제 양식이나 예술적 성취도가 미흡하다. 축제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양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예술적 성취와 감동을 주는 공연이 부재한 탓이다.

거창국제연극제가 19회에 이르는 동안 거창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민들의 문화 예술향수 기회가 확대된 점, 거창 지역의 인지도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대중적 문화예술 향유 폭의 지속적인 증대와 행사의 연혁에 비해 축제의 예술적 기여도, 파급효과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지역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축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국제’ 연극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작품선정, 연극을 통한 국내/국제적 교류의 활성화, 지역 예술의 저변 확대 등의 예술적 가치보다는 지역(거창)을 거점으로 한 관광산업, 관광자원화에 더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오랜 경험이 있으므로 이 연극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진행될 듯하다. 문제는 전망에 있다.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전망을 지닐 수도, 내세운 전망에 대해서 진단하기도 어렵다. 변모가 없는 축제 이것이 오래된 축제의 완성된 모습이라면 불행한 모습이고, 공적 재원으로 운영하는 지역 축제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행사는 계속되는데, 수승대 환경은 한 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망가지고 있다. 수승대 그 오랜 역사적 유물 곁에 그런 공연장을 새롭게 지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극이 아무리 중요해도 자연 환경보다 더 할 수는 없다.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시 중심으로 가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 누구도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연극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공연프로그램은 재공연이 많았는데 이를 “여름철 대표 문화관광 상품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이나 그 밖의 공연장에서 두루 볼 수 있는 작품들이 공연되었으며, 매년 정의되는 축제의 성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 □ 사업운영

‘국제’ 연극제를 표방하고 있고 20일의 축제기간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약 8억의 예산 규모는 그리 큰 액수라고 볼 수 없다. 물론 국내외적으로 축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국제간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8억으로도 국제적 수준의 축제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초청공연이 대부분이고 국제간 교류 또한 활발하지 않고 축제의 인지도도 그리 높지 않은 상황



에서 국제적 수준의 연극제를 개최하려면 예산 규모를 늘리거나 기간을 적정한 선으로 축소하는 수밖에 없다. 공연 프로그램의 질 담보와 축제의 집중성을 위해서라도 기간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계획서 상으로 볼 때, 조직운영 체계가 다소 방만해 보인다. 조직도 상에 존재하는 7개 위원회의 경우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원회 간 어떠한 조직적 연결고리를 갖는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거창국제연극제의 실질적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와 타 위원회간의 관계설정도 불명확해 보인다. 조직운영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피하면서 집행력을 보다 강화하고, 조직 내 불필요한 개입과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조직운영체계가 복잡하지 않으면서 역할과 위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운영은 매끄러운 편이었다. 다만, 더러 약속한 공연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고, 공연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적정수이상의 관객을 무분별하게 입장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쾌적한 공연 관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 및 사업평가, 공연의 단계별 창작과정에 대한 투자 및 방법론 개발, 축제 양식개발, 관광자원과 공연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에 참신성이 없고, 특정 주제를 내걸지만, 전시성 용어에 그치고 있다. 너무나 많은 공연을 하는 통에 실제적 내실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거창국제연극제에 가야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했다.

## □ 사업성과

주최 측의 집계에 따르면, 유료관객 3만6천 여 명, 총 관객 15만 명이 거창국제연극제를 찾았다고 한다. 이 수치의 객관성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축제장이 관광지인 수송대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축제장을 방문한 것만은 확실하다. 다만, 축제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보다는 물놀이를 즐기 위해 온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에 축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단순히 연극을 소재로 한 축제가 아니라 연극이 중심이 되는 축제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연극을 보기위해 거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연극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 층이 두텁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아직 연극제 자체의 정체성과 프로그램(구성)의 완성도, 주변 환경(관광지라서 매우 혼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연극제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고 있다. 목표로 제시한 연극축제의 세계화, 문화 산업화, 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 평가해보면, 일단 과도한 목표설정이란 점은 차치하더라도 현재시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요원해 보인다.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관광자원화를 빼 나머지 두 개 목표의 경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이렇다 할 구체적 세부 방법 및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내용과 형식이 행사의 슬로건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 공연이 재공연인 탓으로, 행사의 완성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너무나 많은 공연, 너무나 많은 부대행사가 있는데, 문제는 밀도가 떨어진다는 데 있다. 행사장 곳곳과 보고서에 ‘국제 문화도시로서의 거창’ 등과 같은 많은 미사여

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너무 선불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향후 전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프로그래머, 큐레이터와 같은 이를 수용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프로그램, 인력, 부대행사 등에 있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요구됨.
-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에 관한 아이디어 등이 부족하며 지금의 축제 양식으로는 예술적 성취를 이 이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이를 위한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거창과 세계 다른 도시를 연계하여 축제를 벌인다든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다년간의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거창국제연극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또한 내용에 비해 규모가 너무나 큰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예산과 규모면에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발상의 전환이 절실함. 또한 거창국제연극제를 지역축제로 한정 짓지 말고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더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지역과 문화권의 인사(해외 인사포함)가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적 축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 주최 측은 “거창을 국제학술회의 개최가 가능한 창조적 문화도시로 디자인화하고, 축제기간 중 낮 공연과 장마철 야외공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으로 실내극장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 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수송대 주변의 더 많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또한 이 행사에서 경연작, 비경연작의 구분은 관객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지 않음. 대부분 관객은 공연을 하니 공연을 보는 것이지, 이를 구분해서 볼 작품을 정하는 것은 아닌 듯함. 다시 말해 경연과 비경연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되물을 필요가 있음.
- 정체성과 방향의 불분명함.
  - 축제의 목표와 방향은 존재하지만 거창국제연극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색깔과 언어가 없음. 참신하면서도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족해 지역성(거창)과 공간성(수송대)을 빼면 특색 없는 다른 연극제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또한 지역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지향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할 뿐 결합의 효과와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음.
- 작품들의 수준이 고르지 못함.
  - 모든 작품이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출 수는 없겠지만 일부 (부대)프로그램의 경우 국제연극제의 위상과는 걸맞지 않았음(예: 무용극<엘마스>, 비보이공연 등).
- 시공간의 재설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대중성과 참여적 측면을 고려할 때 수송대는 매력적인 공간임. 하지만 지금처럼 여름철 물놀이 휴양지의 성격이 강한 혼잡한 공간에서의 연극제는 집중성이 매

우 떨어질 뿐더러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모로 득보다 실이 클 거라 생각됨.  
시기를 혼잡한 때를 피해 재설정(6월말~7월초 혹은 9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함.

- ‘국제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해외초청 프로그램을 갖는 축제의 경우, 어디나 할 것 없이 모두 국제축제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거창국제연극제를 포함해서 국제축제임을 표방하고 있는 대부분의 축제의 경우 ‘국제성’을 내용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축제는 매우 적음. 따라서 ‘국제’라는 허울과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축제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 때 내실 있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제4회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4회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 기간 : 2007년 10월 6일~ 10월 14일
- 장소 : 충남 공주시 공산성(쌍수정·공북루 야외무대)
- 주최 : (사)한국연극협회
- 주관 :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집행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10. 6 ~ 10. 14) → 서면평가(2007. 11.) → 평가회의(2007.11.)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6.8/10.0	13.0/15.0	3.0/5.0	22.8/30.0
현장평가		29.9/41.0	21.1/29.0	51.0/70.0
평가결과	6.8/10.0	42.9/56.0	24.1/34.0	73.8/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4.9/7.0
	2.중장기 계획여부	1.9/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확보율	3.0/5.0
평가결과		22.8/30.0

◦ 현장평가결과(가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4.9/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3.7/5.0
	3.홍보의 적합성	3.7/5.0
	4.사업충실도	4.4/6.0
	5.공간구성의 적절성	3.8/5.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4.0/6.0
	7.관객 서비스	5.4/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4.9/7.0
	2.예술교류 기여도	3.5/5.0
	3.예술적 완성도	3.3/5.0
	4.관객 참여도	5.0/6.0
	5.지역연계성	4.4/6.0
평가결과		51.0/70.0

## 4. 총평

### □ 사업계획

국고지원사업이 갖는 의미 중 지역문화의 발굴과 계승, 더불어 지역 예술인들의 발전을 위한 토양 마련이라는 취지의 복잡성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는 사업의 명칭과 글로벌 시대 대안이 되는 전통문화의 발굴, 지역 문화발전과 지역인프라의 형성,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향토성 짙은 작품의 개발과 발굴, 해외 공연시장 개척이라는 행사 목표를 볼 때 당연히 지원 받아야 할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향토연극제를 표방하고 있기에 향토적인 주제와 향

토를 기반으로 한 단체들의 참여와 이에 기반 한 운영주체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는 그 명칭에 걸맞은 행사 내용을 가지지 못했으며, 이는 계획안에서도 보여 졌다. 즉, 사업을 총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한국연극협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주에 기반 한 지역 연극인들보다는 외부에 의해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향토적인 주제를 연극이라는 방식으로 수용하여 지역소재 문화자원의 발굴 및 계승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사 참여 대상과 작품 선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스스로 정체성을 흐리게 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변별되는 지점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울러 장기적인 전망 또한 행사의 주최가 한국연극협회이고, 주관이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집행위원회인 탓에 중장기 계획을 누가 책임을 지고 주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 또한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해외공연시장을 개척한다는 목적은 타 축제와 변별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할 만한 계획 또한 부재한 것이 현실이었다.

## □ 사업운영

조직 운영 부분에서는 주최단체인 한국연극협회와 지역의 주관 단체 간 행사 주체의 모호함으로 인한 시스템적 한계가 드러났으며, 결국 금년에 집행위원회의 역할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부 집행위 간부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 운영 부분에서는 경연을 통한 창작지원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악용할 소지가 보이기도 한다. 즉, 동일한 인물의 이름이 극작이나 연출 등에 중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연극을 토대로 한다는 행사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아울러 해외공연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예산 수립이나 홍보 부분 상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축제 공간 측면에서는 공간이 갖는 개방성과 현장 조응성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장르 예술이 갖는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탓에 관객들의 몰입이나 공연자들의 공연에의 몰입 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공간을 양분하여 진행하는 것 역시 작품의 내용이나 관객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구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공간을 나눈 이유가 불분명하였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개최된 백제문화제와의 장소적 변별력이 없고 운영상의 미숙함으로 인해 본 연극제가 고유 행사인지 백제 문화제의 일부 프로그램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였다.

프로그램의 측면에서는 공식선정 작품과 같은 경우 메인 공연 한 달 전에 심사 발표를 하고 지원을 하는 체계이다 보니 당연히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여 참가하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작품이 더 선정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는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 여실히 보여 졌다. 심사위원 스스로가 자인하듯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색과는 다른 주제를 들고 오거나 공연 공간이 갖는 특색들을 고려하지 못한 공연, 시대적인 흐름과 전통과의 단절이나 괴리감 등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게다가 어린이와 성인관객을 구분 없이 수용하다 보니 어린이 입장에서는 관람해서는 안 될 작품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공연이 두 시간 가량이나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관객 서비스는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인력 시스템들이 갖춰진

후 가능한 것이다. 아쉽게도 주변의 환경은 관객에게 충분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는 타 축제와 동시에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공연장 및 공연장 주변이 정리되지 못한 가운데 행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이때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스텝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스스로가 이 연극제가 갖는 의미나 역할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공연이 어디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 사업성과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인프라 형성, 향토성 짙은 작품의 개발 그리고 해외 공연시장의 개척이라는 목적에 두고 보았을 때 그 달성도는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

단순히 창작에 대한 지원과 경연을 통한 지원, 향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조직 시스템 등으로 인해 연극제의 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의 시각에서 연극제를 평가하며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실패하여 연극제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실제 행사 내용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전통을 새로운 시대의 대안문화로 엮어가고자 하는 의지는 연극제 안에서 크게 보여 지지 않았으며, 해외공연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엄선된 작품에 대한 재가공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국제적 공연기획자들이 참여하여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책들은 전혀 계획 되거나 실행되지 못했다.

예술교류 기여도 면에서는 총 11개 팀의 참가 신청 후 10개 팀이 참여한 현황에서 보여지 듯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연극제 기간 동안 각 지역별 참여단체들이 교류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지역연극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나갈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문제가 있다. 중앙의 연극인과 원로들의 교류에는 상당한 재원 투여가 이뤄졌지만 일선의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류 기회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발전을 위한 모색에 있어서는 미흡했다.

예술적 완성도 면에서는 창작극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에서도 보듯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지역내부의 역사적 소재를 극으로 승화하여 전개해 나가는 일련의 시도들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지만 향후 이를 더욱 깊이 있는 작품으로 완결 시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높은 관객 참여도는 동시기에 열린 백제문화제와 행사공간이 야외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순수관객들은 찾기 어려웠고 잠시 관람하다 이동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작품 전반에 대한 피드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역연계성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홍보 협조 등은 긍정적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연극 공연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의 조성 등에는 아직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이 한계로 보여 진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제와 동시기에 개최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동시에 개최되어서 얻는 장점 보다는 백제 문화제의 일부분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연극 축제로서의 위상확립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마나루 전국 향토연극제 집행위원회를 지역 조직화 하고 상근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행사 주체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행사의 목적과 실제행사 내용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예술인들의 연극제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의 기회가 미흡함.
- 매해 공연과 관련한 주제를 미리 부여하고 이에 대한 평가방법과 지원 방법 또한 차별화하는 등 향토축제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적어도 1년 전에는 공지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공연 등을 위해 해외기획자의 초청 및 아트마켓, 네트워크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 등의 개최를 검토하고 매해 연극제 종료 후 평가 토론회 등의 사후 관리를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지역축제인 백제문화제와의 동시 개최가 연극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검토가 필요함.
- 연극제 관련 예산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의존도가 높음.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펀드레이징 등을 통해 점차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이원화된 공연장의 변별력이 떨어지며, 따라서 실내극과 야외극으로 나누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복합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우수 공연작품에 대한 시상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제19회 마산국제연극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19회 마산국제연극제
- 기간 : 2007년 11월 24일 ~ 12월 3일
- 장소 : 마산 MBC 홀
- 주최 : (사) 마산국제연극제 진흥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5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11. 24 ~ 12. 3) → 서면평가(2007. 12.) → 평가회의(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6.6/10.0	13.0/15.0	5.0/5.0	24.6/30.0
현장평가		28.7/41.0	20.7/29.0	49.4/70.0
평가결과	6.6/10.0	41.7/56.0	25.7/34.0	74.0/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4.6/7.0
	2.중장기 계획여부	2.0/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5.0/5.0
평가결과		24.6/30.0

◦ 현장평가결과(가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0/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3.3/5.0
	3.홍보의 적합성	3.7/5.0
	4.사업충실도	4.1/6.0
	5.공간구성의 적절성	3.2/5.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4.0/6.0
	7.관객 서비스	5.4/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4.7/7.0
	2.예술교류 기여도	3.3/5.0
	3.예술적 완성도	3.5/5.0
	4.관객 참여도	4.8/6.0
	5.지역연계성	4.4/6.0
평가결과		49.4/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올해 마산국제연극제는 19회라는 연혁에 걸맞는 국제 행사의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시기에 행사가 열리고 갑자기 아동극 중심의 연극제로 전환한 점, 해외 참가단체의 경우 연극이 아닌 쇼 이벤트 성격의 공연단이라는 점, 행사 장소가 방송국 내 극장으로 한정된 점 등 지역 문화예술 및 연극 장르의 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행사였다.

주최 측은 “세계 각국의 수준 높은 연극 및 공연예술작품을 유치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단체만으로 구성된 아동극과 해외 이벤트 공연물을 유치한 점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공연들 역시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주최 측의 목표는 “19회 마산국제연극제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순화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 위함, 또한 매년 마산국제연극제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연극의 지평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이라고 했지만, 올해 행사를 보면 한국연극의 지평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는 과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으로 개막공연인 <기차>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몇 년 전부터 전국 단위의 공연행사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이는 올해 마산국제연극제가 행사 자체를 위한 행사라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올해 마산국제연극제는 국가와 지역의 지원금으로 추진되는 국제행사로서 공공성을 저하시켰으며, 지역 문화예술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 사업운영

(사)마산국제연극제진흥회가 19년 동안 본 행사를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축적시키지 못한 것은 지역을 위하여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제행사의 경우 최고 책임자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질 높은 행사 추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실무자들의 교체는 행사 진행의 전문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된다.

프로그램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내 아동극 단체의 아동극 공연과 아동극 공연을 앞두고 사전행사와 같은 이벤트 공연이 그것이었는데 국제연극제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단체라 불려온 공연 단체의 성격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한 11월 27일(화)에 공연한 ‘라틴과 현대무용’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보기에 민망할 만큼 노출이 많은 대중적 공연물이었으며, 28일(수)의 공연은 이벤트 행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크로바틱 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 □ 사업성과

주관 단체는 “우리 마산만의 독창적인 국제연극제로 발전시켜, ‘부산국제영화제’, ‘광주미술 비엔날레’, ‘전주 대사습’ 처럼 향후 마산을 대표하는 자생력을 갖춘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하였지만, 행사 내용은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국내 아동극의 경우 대부분 서울의 단체를 초청하여 공연하였으므로 지역 문화예술계의 발전과는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마산국제연극제를 통하여 사회적으로나 문화적 측면에서 기대한 “대동축제로서의 역할”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축제 컨셉과 구성이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어린이를 위한 연극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보면 연극의 효용이 확대되는 것이고, 미래 잠재 관객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객 동원

에 수월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행사에서 공연된 공연들을 포함하여, 어린이 연극은 그 수준이 정체되어 있었다. 국제적 단위의 어린이 연극 행사인 서울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와 비교하면 이 행사는 미흡하다는 인상을 준다. 과거 18회까지 치러온 행사 컨셉의 돌연한 변경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 공연에는 어린이 관객이 많았다. 그러나 관객 수만으로 행사의 완성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행사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실제 행사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올해 행사는 국고지원 목적 부합성에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연극제’로서 기본적 구성이 미흡함.(해외공연의 경우 연극이 아닌 이벤트 성격의 공연물이라는 점.) 새롭게 원점에서부터 지역단위 국제연극제 컨셉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추진주체와 실무책임자들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역의 문화예술계와의 연계가 미흡했음. (지역 단체 참가 비율이 낮았음.) 본 공연에 지역 단체의 참가를 권장하고, 해외교류 이전에 지역문화계와의 우선적인 교류가 필요함.
- 축제다운 풍성함과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함.(단일 행사장에서 단일 행사 아이템이 매일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연극 외에 다양한 문화와 인력이 교류하고, 인적·물적 가치를 재창조하는 축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제7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7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 기 간 : 2007년 7월 20일 ~ 8월 5일
- 장 소 : 밀양연극촌 내 <연극실험실> <스튜디오극장> <브레히트극장>  
<우리동네극장>, <숲의 극장>, 밀양시내 <영남루 야외극장>
- 주 최 : 밀양시 밀양연극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7. 20 ~ 8. 5) → 서면평가(2007. 9.) →  
평가회의(2007. 11.)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9.2/10.0	14.0/15.0	4.0/5.0	27.2/30.0
현장평가		36.9/41.0	27.2/29.0	64.1/70.0
평가결과	9.2/10.0	50.9/56.0	31.2/34.0	91.3/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6/7.0
	2.중장기 계획여부	2.6/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2.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4.0/5.0
평가결과		27.2/30.0

◦ 현장평가결과(가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5/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8/5.0
	3.홍보의 적합성	4.4/5.0
	4.사업충실도	5.6/6.0
	5.공간구성의 적절성	4.3/5.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4/6.0
	7.관객 서비스	5.9/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8/7.0
	2.예술교류 기여도	4.5/5.0
	3.예술적 완성도	4.7/5.0
	4.관객 참여도	5.8/6.0
	5.지역연계성	5.4/6.0
평가결과		64.1/70.0

## 4. 총평

### □ 사업계획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주최 측이 설정한 목표에 부합했던 축제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몇 가지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기간의 레지던스 시스템에 의한 사전 제작(워크숍, 연습 등)이 이루어지고 예술단체간 협업 및 교류가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창작기지와 축제공간의 일치라는 밀양연극촌의 특성이 실제로 축제 프로그램 전체를 떠받치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밀양지역의 역사적인 상징공간이자 친밀한 휴식공간인 영남루를 축제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며 축제의 외연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축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지원예산을 늘리도록 한 것은 축제기획의 진취성과 적시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올해 축제는 ‘연극,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구성과 전개가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주제에 값하는 작품을 제작·섭외하는 성실함과 브레히트라는 한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전개는 축제의 구심력을 만들어 냈다. 이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외연을 확대하거나 다른 축제의 성공사례를 빌려오는 식의 성장전략과는 구별되는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만의 건강하고도 창의적인 성장전략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젊은 연출가전과 대학극전을 통해 젊은 연극인들과 예비연극인들에게 성과 발표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작의 질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의 젊은 연극인들의 창작의 흐름을 조망하는 장으로서의 기대를 갖게 한다.

## □ 사업운영

예술감독은 축제의 프로그래밍을, 집행위원장은 지역인 출신으로 예산확보를 비롯한 행정중심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양자의 역할분담이 명확하며 합리적이다. 축제 실무조직은 연희단 거리패 소속으로 장기적인 안정성이 장점이라 할 수 있으나 연극이라는 콘텐츠를 축제로 승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7일간의 공연이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운영되어, 사업운영 조직이 체계적이며 성실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채로움과 균형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대행사나 프린지공연도 축제의 유연함을 만들어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축제의 목적에 명시된 ‘국제교류’와 ‘지역문화와의 어우러짐’에 맞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06년도에 비하여 고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성과가 두드러져 보인다. 브레히트극장과 숲의 극장을 리모델링하고 전극장의 객석을 지정좌석제로 바꾸면서 관객관리가 수월해졌으며, 냉방장치 보완, 야외극장 객석보완 등으로 2006년 평가 시 3대 약재로 지적되었던 더위, 해충, 객석불편 등은 많이 해소되었다. 또한 시내 및 연극촌 곳곳에 배너, 현수막, 홍보탑 설치로 축제분위기가 살아났고, 축제장소를 찾는 관객의 불편도 많이 줄었다. 특히 홈페이지는 축제공지, 이벤트, 관객후기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으로써 총 9만여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홍보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 □ 사업성과

행사의 규모가 커졌으며, 그에 따라 참여 관객도 크게 늘었다. 이는 영남루 등 시내로 진출한 무대나 예약시스템 보완 등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으

로 축제기간 중 총 500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관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으며 그 가운데 연령 분포를 보면 축제가 여러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밀양사랑티켓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에게 반값의 티켓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단체관람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였다고 평가되며, 전좌석지정제 실시는 관객의 혼란 방지와 대기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었다. 또한 자체인터넷 예매시스템 구축으로 홈페이지에서 공연을 예약, 예매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관객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자체 홈페이지의 리뉴얼로 축제에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홈페이지 내에 다양한 이벤트(관극후기, 나눔터 등) 코너를 마련하여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했으며, 밀양역에서 영남루, 연극촌에 이르는 노선에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고객편의를 제공한 것은 향후 관객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린지 행사로 축제 홍보 및 볼거리 제공하고, 특히 전공연이 끝난 심야에 뒤풀이 무대를 마련하여 즐거움을 제공한 것도 돋보였다. 정체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배치와 관객서비스에 대한 노력, 지자체의 협력, 그리고 고객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축제의 완성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올해의 경우 젊은연출가전과 대학극전은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실험정신보다는 일상에의 안주를, 패기보다는 상업적인 재미에 무게비중을 둔 듯한 인상을 받았음. 이렇듯 젊은연출가전이나 대학극의 내용이 세상 읽기나 문학성의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면 축제 조직 내부에서도 이러한 의식의 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아비뇽’이라는 슬로건을 계속 내세우는 것은 축제가 창의성보다는 트렌드를 쫓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어 참가극단이나 조직 모두에게 상당히 위험해 보임. 본래의 목표대로 행사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축제의 목적에 명시된 ‘국제교류’ 부분과 ‘지역문화와의 어우러짐’ 부분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됨. 지역작품의 경우 예술적 역량을 가진 단체가 적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나, 향후 수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객의 성향을 살펴보면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의 명성과 그 독특성에 대한 순례차원의 대중이거나 이름 있는 작품에 대한 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니아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임. 가족단위나 청소년 등 공중(public)을 관객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에 갇힌 작품의 향유를 넘어 축제 전반에 걸쳐 주체로서 연극문화를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컨셉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봄.
- 축제 기간이 무더운 한여름이라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연 관람 시간대 이외에도 적절한 참여 프로그램이나 연습 과정, 무대 준비 참관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사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고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임.
- 축제 주최 측이 설정한 방향과 어긋날 수도 있지만, 연극 관객의 저변을 넓히고,



미래의 관객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아동극, 인형극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임.

- 주최 측이 갖고 있는 연극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은 비교적 뚜렷하나 이를 축제로 만드는 마인드나 역량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됨. 먼저 목표설정부터 연극을 관람하는 것이 아닌 관객 모두가 연극을 체험하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하며, 이러한 목표에 따라 공간과 프로그램이 디자인되기 위해서는 축제 디자이너로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진 실무자나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설개선의 의지와 이에 따른 성과가 있으나 여전히 나무의자로 된 딱딱한 좌석, 주변 식목과 조경관리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는 현장안내 시스템이 없었음. 본 행사는 인지도가 높으므로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도 간간히 찾는 방문객이 있음. 이러한 관람객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축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 항구적인 기반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2007 부산국제연극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부산국제연극제
- 기간 : 2007년 5월 5일 ~ 5월 15일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등
- 주최 : 부산광역시
- 주관 : (사)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5. 5 ~ 5. 15) → 서면평가(2007. 8.) → 평가회의(2007.11.)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5/10.0	13.0/15.0	5.0/5.0	26.5/30.0
현장평가		32.9/41.0	23.9/29.0	56.8/70.0
평가결과	8.5/10.0	45.9/56.0	28.9/34.0	83.3/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9/7.0
	2.중장기 계획여부	2.6/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5.0/5.0
평가결과		26.5/30.0

◦ 현장평가결과(가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6/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5/5.0
	3.홍보의 적합성	3.9/5.0
	4.사업총실도	5.4/6.0
	5.공간구성의 적절성	3.5/5.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4.6/6.0
	7.관객 서비스	5.4/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1/7.0
	2.예술교류 기여도	3.8/5.0
	3.예술적 완성도	3.8/5.0
	4.관객 참여도	5.0/6.0
	5.지역연계성	5.2/6.0
평가결과		56.8/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예술부문에 있어서 부산은 그동안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도시로 알려져 왔다. 이것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일정한 문화 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부산의 문화 현상이 영화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국제연극제’는 부산 시민 및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와 형식을 지닌 연극을 보여줌으로써 균형 잡힌 문화 향수를 가능하게 해줄 것

이라는 기대를 갖게끔 한다. 물론 경남 지역에는 밀양, 거창, 마산, 포항 등 규모가 큰 연극제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연극제’가 4회를 넘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또 그 발전 규모가 최소한 ‘부산국제영화제’에 필적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양한 문화의 향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부산국제연극제는 매년 축제의 주제를 달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국제공연예술축제들과의 변별성을 지니고, 또한 소위 백화점식 공연 방식을 피하고자 하는 주최 측의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연극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서 발견되는 과도한 부산이라는 지역 주의적 색채가 행사 발전에 다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좀 더 폭을 넓혀 글로벌한 축제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국고 지원 사업으로서의 목적성은 분명해 보이며, 장기적인 전망으로 바라본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 사업운영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본 행사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었다. 국고 지원이 1억, 부산시의 지원이 1억 5천 그리고 진행본부의 자부담이 1억 정도로 구성된 예산이었다. 예산구성은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소위 ‘공연보상금’의 지출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해외극단의 경우 체류비와 공연에 필요한 경비는 어쩔 수 없는 지출로 이해한다고 해도 과도한 공연 보상비와 식대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행사를 위해 조직위원회에 포함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연극예술인들 및 지역 유지들이 대거 참여한 듯하다. 개막식에 초청된 예술계 원로 및 유력인사들도 부산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명망을 지닌 인사들이었다. 외관상 이번 연극제는 국제연극제라는 명칭에 부합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관에 비해 실제 연극제의 프로그램 구성과 그 내용 그리고 진행에 있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았다. 먼저, 행사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부산시민들도 부산국제연극제의 개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행사가 부산문화회관과 경성대를 중심으로 한 좁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부산 지역의 축제가 아닌 소박한 행사에 그쳤다고 생각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구성은 “세계명작 뒤집기”라는 테마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도권에서 상연되었던 작품의 재공연이거나 테마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볼 수 없는 공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넷째, 진행요원들의 미숙함으로 공연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공연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부산에 있는 연극관련 대학의 지원이 두드러졌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관객동원과 기타의 모든 행사가 다소 대학생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2007년 행사에서 “10분 연극제”와 같은 행사는 연극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모으고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높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10분 연극제”가 아직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점과 그 내용이 개그나 코믹한 상황의 재현에 그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

야 한다. 기발한 발상인 “10분 연극제”가 좀 더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을 통해, 부산국제 연극제의 ‘명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 □ 사업성과

이번 부산국제연극제는 국내 여타의 연극제와는 다르게 “세계명작뒤집기”라는 테마연극제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잘못하면 아무런 특징 없는 행사로 끝날 우려가 많은 통상적인 연극제를 지양하려는 시도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극제는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올해 부산국제연극제의 객석 점유율은 2004년 대비 두 배 정도가 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객석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사무국의 실무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한국사회의 문화적 욕구와 소비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10분 연극제’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러한 행사는 단순히 소비와 공급의 시스템에 머무를 수도 있는 축제에 새로운 차원의 기류를 형성해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문화 욕구는 소비에서만 아니라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는 등 일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존재와 열정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특히 프로그램이 재공연되는 작품이거나 외국의 소규모 단막극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매우 흥미로워했다. 이런 관객들의 존재와 연극에 대한 열정이 부산국제연극제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프로그램의 구성과 행사 및 그 진행의 완성도가 그리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감상하고 또 감상할 연극을 필요로 하는 관객들의 존재가 두드러져 보였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화려한 외관에 비해 행사 내용이 빈약함. 연극제의 조직, 행사의 컨셉, 시기, 참여인사들 등 연극제를 치르기 위한 외적인 준비는 충분했던 것에 비해 실제 연극제에 참가한 작품들의 참신성, 예술성, 대중성은 미흡했음.
- 역량 있는 예술 감독의 선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연극제의 국제성을 충족하고 또 그에 따른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적 준비만으로는 부족함. 따라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할 수 있는 예술 감독이 필요함.
- 만일 부산국제연극제를 테마연극제로 지속할 경우, 그 테마 역시 매년 자의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일정한 방향을 정하고 그 연속성 위에서 세부적인 테마를 정하고 이에 걸맞는 작품들을 초청하는 것이 필요함.
- 과도한 공연보상비를 줄여야 함. 연극제의 축제 성을 살려서 참가극단들에게 필요경비만을 지급하고 공연 참가 자체가 보상이 되는 연극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좀 더 치밀한 연극제 홍보를 통해 연극제 기간 동안만이라도 많은 부산시민들이 연극제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철도역, 공항, 시내 주요시설의 홍보 요원 및 홍보시설을 대폭 강화해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2007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기간 : 2007년 9월20일 ~10월14일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드라마센터,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정동극장 등
- 주최/주관 : (사)서울국제공연예술제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5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10.4 ~ 10.27)→서면평가(2007.11.)→평가회의  
(2007. 11.)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4/10.0	13.0/15.0	4.0/5.0	25.4/30.0
현장평가		34.5/40.0	25.9/30.0	60.4/70.0
평가결과	8.4/10.0	47.5/55.0	29.9/35.0	85.8/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1/7.0
	2.중장기 계획여부	2.3/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확보율	4.0/5.0
평가결과		25.4/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9/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1/5.0
	3.홍보의 적합성	4.4/5.0
	4.사업충실도	5.3/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5/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4/6.0
	7.관객 서비스	5.9/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0/7.0
	2.사회적 파급효과	5.0/6.0
	3.예술교류 기여도	4.3/5.0
	4.예술적 완성도	5.2/6.0
	5.관객 참여도	5.4/6.0
평가결과		60.4/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시아 최고수준의 공연예술축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과 연극과 무용 장르를 포괄하여 행사를 구성한 점 등이 타 행사와 어느 정도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2007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국내공연예술계의 비중 있는 행사이며, 대외적인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행사로 국내 관객



들에게 직접 가 볼 수 없는 다양한 해외 공연들을 국내에 소개, 글로벌 시대의 문화를 공유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문화의식과 수준 향상에 일익을 담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2007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2007)는 공연예술을 ‘도발, 불온을 꿈꾸는 것’으로 설정하고 그 꿈을 공연예술의 공동 작업자이며 참여자 그룹 전체의 소통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참가작들은 눈에 익은 작품 형식에서 탈피하여 공연예술의 현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축제의 목표에 부합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행사 세부목표로는 국가 이미지 고양, 세계 공연예술 교류의 거점 구축, 수준 높은 예술작품과 대중과의 창조적 교류, 공연예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미래예술의 비전과 환경을 개발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설정하였는데 각각의 목표가 국고지원의 충분한 명분을 담고 있다. 또한 이 행사의 단기 또는 중장기 지향점은 “아시아 최고수준의 공연예술제로 위상 정립”인데 올해 행사에서 이에 부응하는 측면들이 일부 보여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제가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선언적 명분만이 앞서는 경 우가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2007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신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참신성은 출품작들보다는 행사 구성 면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았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창설 이래 연극 분야 작품들이 대중을 이루고, 무용의 비중은 미약하였으나 2007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전체 국내외 출품작 38편 중 무용이 21편, 연극이 14편, 음악이 3편으로 공연예술 장르 간 균형을 어느 정도 이뤄내었다.

2007년도 한 해의 변화를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으나,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공연 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할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행사의 목표로 기술된 것과 같이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한국 공연문화를 대표하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아이콘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행사기획이나 작품선정에서 좀 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 사업운영

전년도에 비해 사업운영 면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집행주체의 의지가 기획과 프로그램 전반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 중심이 낮았던 무용의 비중을 늘리고 연극과 무용 간의 장르를 융합하는 시도들이 행사구성에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 공연예술의 조류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제 기간 중에 개최된 서울 포럼은 해외 공연예술계와의 실제적인 교류를 이루어 내었고, 서울아트마켓과의 연계는 공연예술단체 관계자들의 네트워킹과 예술작품의 국내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의미 있는 연계 사업으로 보았다. 또한 국내 작품들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품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것은 자칫 예술감독과 사무국의 취향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는 단점을 커버하고, 향후 프로그래밍과 연계하는 바람직

한 선례로 볼 수 있다. 올해 선정된 작품들은 예년에 비해 소규모의 실험적인 공연이 많았으나, 수준 있는 공연들로 채워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 관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준급의 해외 사실주의 공연들도 포함시켜 다양성을 추구했으면 더 좋았을 듯하다. 그러나 한·일 합작 공연, 일본, 인도, 기타국가의 문화상호적 공연 등, 또 다른 차원에서 작품 선정에 나름대로 다양성을 보여주려 노력한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워크숍, 신작희곡 페스티벌, 예술가와의 대화 등의 부대 행사 역시 다양한 관심을 유발하는데 기여했다고 보았다.

관객 서비스 면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 공연 시 동시 통역기를 활용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저녁 공연을 오후 8시에 설정한 것 역시 직장인 관객들의 퇴근 후 이동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긍정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일부 공연에서는 자막이 무대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객석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관람객을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업체의 협찬 유치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사업 운영 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2007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수년간 나름대로의 성과를 축적하여 조직, 프로그램 구성, 행사운영 전반에서 점차적으로 안정화 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나 행사의 자생력 확보 면에서 협찬사와 후원처 등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예산확보는 순탄한 것이 아니며 이는 행사의 안정적인 개최와 참가작의 일정한 수준확보를 위협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안정적 개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주체는 협찬과 후원을 통한 재원 확보 이외에 관객 입장 수입의 증대, 부대사업 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경영 전략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도 있겠다.

사무국 실무진들의 노력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나, 사무국 인원 가운데 무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경험이나 경력을 갖춘 인력의 비율이 낮아 보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무국 인력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진의 역할은 매우 포괄적이겠으나, 작품 선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 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용 및 연극 분야에 두루 식견이 있는 인물이 좀 더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사업성과

관객참여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언론 보도 건수가 많은 등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인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부대 행사와 연극관련 행사를 통해 연극계의 관심을 모은 것 역시 긍정적이었다. 공연 관람료가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매율과 객석점유율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다만, 관객들 중에 연극학과 학생이나 연극관련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관객의 참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작품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실험성이 강한 작품들은 마니아 관객에게만 예술적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작품의 수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극적 완성도와 실험성 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다양한 관객층을 아우르면서 지속적으로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부대행사의 사전·사후 보고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극과 무용 등 상호 교류 제작의 실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해 볼만 하다.

2007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무용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무용계의 관심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대체로 양적 측면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질적인 면을 고려해볼 때 관객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한국 공연예술문화를 대표하는 국제예술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관객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를 위해서는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해외유수공연들을 공식초청작으로 하고 실험스타일의 공연들을 자유참가작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축제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행사의 발전을 위해 현 상황을 점검,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됨. 이를 위해 축제 내부 조직을 포함, 공연예술계 전문가와 지원 주체가 공동으로 ‘중장기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가작품 선정을 각 해외지역 별이나 특정국가 별, 장르 별, 세대 별 연극전공자로 구성된 작품선정 위원회의 강화가 필요함. 글로벌 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공연예술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연극전문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시각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운영의 묘를 발휘해야함. 이와 더불어 축제의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해외 작품들을 선정위원들이 직접 권역별로 활동한 결과를 예술감독의 책임 하에 결정토록 보완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출품작 간의 수준 편차를 줄여야 함. 특히 무용부분에서 참가작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올해 행사에서는 한국 무용의 비중이 낮았는데 창작무용 계열의 한국무용을 한국 버전의 컨템퍼러리 댄스에 해당하는 장르로 대하는 관점의 확대가 요구됨.
-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해외 작품섭외를 위한 국외 출장비’ 항목의 경우 선정위원회에 다양한 지역, 장르 및 세대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또한 인터넷과 해외 연극관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됨. 향후 해외 공연의 초청도 여타 해외국제연극제에서 하는 관행을 따라 정식 초청공연은 항공료 및 공연비만 주최 측이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최 측의 자생력 확보 노력과 지원주체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함.
- 운영 홍보 전반에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관객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관객

개발이 필요함. 자막 번역과 운영에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는데, 해당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자막오퍼레이터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가와의 대화가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전 기획과 사회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함. 또한 관객 사후 관리를 위해 공연 감상문 공모를 통해 내년도 공연에 초대하는 등 관객개발과 사후 관리 마인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연령대별·직업별 모니터 요원을 선발 운영하여 다양한 관객의 입장과 반응을 수렴하여 차기년도 전략 수립에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축제 개최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9~10월에 몰려 있는 서울세계무용축제, 과천한마당축제,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등과의 일정 중복은 축제의 차별성과 집중성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음.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2007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07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 기 간 : 2007년 7월 21일 ~ 7월 29일
- 장 소 : 아르코 대·소극장, 동숭교회 엘림홀, 우석 레퍼토리 극장,  
블랙박스 극장
- 주 최 :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 주 관 : 2007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운영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7.24 ~ 7.29)→서면평가(2007.9.)→  
평가회의(2007.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4/10.0	12.0/15.0	3.0/5.0	23.4/30.0
현장평가		33.7/40.0	25.8/30.0	59.5/70.0
평가결과	8.4/10.0	45.7/55.0	28.8/35.0	82.9/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1/7.0
	2.중장기 계획여부	2.3/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1.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2.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3.0/5.0
평가결과		23.4/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2/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2/5.0
	3.홍보의 적합성	4.2/5.0
	4.사업충실도	4.9/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3/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0/6.0
	7.관객 서비스	5.9/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3/7.0
	2.사회적 파급효과	5.0/6.0
	3.예술교류 기여도	4.3/5.0
	4.예술적 완성도	5.0/6.0
	5.관객 참여도	5.2/6.0
평가결과		59.5/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아동과 청소년들의 연극 관람은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 개발과 인성 개발 등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국고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2007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는 국제화를 보다 강조한 축제외형상 확장되어 주최 측의 행사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 동안 본 축제는 여타 공연예술 행사와는 다르게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관객으로 삼으면서 독자적인 개성을 획득하였다. 특히 올해는 세계의 관련 전문가들과 예

술감독을 초청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의 작품을 국외에 소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로가 인정된다. 또한 축제의 규모를 보다 국제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 아동극 축제를 별도로 추가하여 아시아 어린이연극에 관심을 모으면서 축제의 참신성과 개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행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언급된 바지만, 어린이와 청소년 관객을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중심관객은 어린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한다. 특히 해외 초청작의 경우 초청작 대부분이 어린이 관객을 위한 놀이성이 강조된 작품이어서 작품 선별과정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부터는 아시아 어린이 연극으로 축제의 중심 방향을 잡고 있지만, 관객들은 서구권 연극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 주최 측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우려된다.

전체적으로 행사의 의의는 인정되나 작품 선택에 있어서의 비전과 안목, 목표에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의 계획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들이 요청된다.

## □ 사업운영

본 축제는 기존의 성과에 힘입어 비교적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예산 운용 부문에서 해외 공연 초청을 위해 해외에 파견하는 인력과 비용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전체 예산의 약 27% 가량을 차지하는 홍보비에 비해 그 효과가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의 역사가 이미 15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확립하였을 것이고 관객들도 기본적으로 이 축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초기와 같은 방식의 운용을 넘어서서 좀 더 경제적이면서도 집약적인 국제 교류와 홍보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축제는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험에 힘입어 행사 진행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었고, 조직력이나 지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에 있어서 상당히 자리가 잡혔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공연장 사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령 하중 용량이 작은 엘리베이터 한 대만이 비치되어 공연장까지 입장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는 블랙박스씨어터나, 동송교회처럼 경직된 느낌을 주는 장소가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 공연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초기에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전부 다 실행되지 않은 점이 유감이다. 가령 해외초청작 중 관객들의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영국 공연이 취소되고 한국 공연으로 대체되어 혼선을 빚은 점, 부대 행사로 기획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비보이 공연, 전통놀이 한마당 등 규모 있는 프로그램들이 모두 취소되고 작은 행사들만 진행된 점은 아무리 부대행사라 하더라도 무성의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 □ 사업성과

관객 참여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일본의 <안녕 오키나와>처럼 객석 점유율이 낮은 공연도 간혹 보였지만, 대부분의 공연장은 어린이 관객과 보호자들로 만석이었다. 그러나 청소년 관객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런 현상은 이 축제의 초점이 주로 어린이극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작품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캐나다의 <카고>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벼운 여흥 중심의 단순한 작품만 초청되어 공연의 수준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작품의 선별과정과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본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축제의 정체성과 미래의 비전을 검토하고 그에 입각하여 세부 실행 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청됨.
- ‘아시테지 페스티벌’로 새로 변경된 축제가 일종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앞으로 축제의 방향과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새로 마련된 아시아아동극 축제는 의도는 좋으나 작품 선정에 있어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 어린이 관객만이 아니라 청소년 관객 개발을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알차고 다채로운 부대행사 개발이 요구됨.
- 어린이연극의 경우에는 어린이 관객을 위한 안전하고 적절한 분위기를 가진 공연 장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이 축제가 15년의 관록 있는 역사를 가진 만큼 이제 과거의 경험을 자산 삼아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마케팅 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07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07
- 기간 : 2007년 8월14일 ~ 9월1일
- 장소 : 홍대 일원 40여개 공연장/전시장 및 걷고 싶은 거리 등
- 주최/주관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8. 14 ~ 9. 1) → 서면평가(2007. 10.) → 평가회의(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9.4/10.0	13.0/15.0	3.0/5.0	25.4/30.0
현장평가		36.7/40.0	26.9/30.0	63.6/70.0
평가결과	9.4/10.0	49.7/55.0	29.9/35.0	89.0/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6/7.0
	2.중장기 계획여부	2.8/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확보율	3.0/5.0
평가결과		25.4/30.0

◦ 현장평가결과 (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6/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8/5.0
	3.홍보의 적합성	4.6/5.0
	4.사업충실도	5.5/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3/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4/6.0
	7.관객 서비스	6.5/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8/7.0
	2.사회적 파급 효과	5.4/6.0
	3.예술교류 기여도	4.5/5.0
	4.예술적 완성도	5.0/6.0
	5.관객 참여도	5.2/6.0
평가결과		63.6/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문화의 다양성과 기초예술의 근본적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연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업적이거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작품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탄생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기초예술이나 창작환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현행 풍토 속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축제는 다양한 예술 장르가 한데 모여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행사이다. 극장, 카페, 전시관, 거리 등에서 중구난방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예술 활동은 그 자체가 동시대 문화예술의 활동사진이다.

기존의 틀을 고수하려는 주류가 가지는 역학적 구심력에 비해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위하여 스스로 주변적인 존재임을 선언한 이 예술 활동은 다분히 탈 중심적이다. 이러한 탈 중심적 문화 지형 속에 자리 잡은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작품들만이 존재하는 주류의 발전과 영속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행사가 소극적 축제에서 탈바꿈하여 적극적으로 장르 간 융합과 소통을 시도하고 축제 자체 기획물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 특히 지속 가능한 실험을 위한 공간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 사업운영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존재목적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축제를 이끄는 조직의 안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꾸준한 연구를 기반으로 참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소명의식과 운영시스템 그리고 흥대일원의 공간 활용 능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예술형태의 복합층위와 공간이 다양하게 뒤섞여 벌어지는, 스펙트럼이 넓은 이 축제는 고성방가·이구동성·내부공사·중구난방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표현의 혼재가 교묘하게 중심을 잡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아시아의 네트워크,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관객을 위한 워크숍 등을 진행함으로써 행사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본다. 행사 운영 면에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호흡과 흐름이 유지되었다고 본다. 특히 점점 더 많이 눈에 띄는 외국인과 관객을 위한 자연스러운 동선 배치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 □ 사업성과

이 행사는 장르, 공간, 매체, 규범이 넘나드는 오늘날의 다원적인 예술 창조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 즉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기존 체제에서 만들어내기 어려운 새로운 현상을 생산하기 위한 자발적인 혼재의 공간으로 선진 문화 예술의 근간이 되는 혼돈의 창조력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전을 넣자마자 커피가 나오는 실용적 투자라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가치 곧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는 근본적인 토양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기에 본 행사가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토양을 통하여 지금은 선도적 역할을 해내고 있는 시어터 댄스 까두, 드림플레이, 크라이넛, 극단 여행자, 국악뮤지컬 그룹 타루, 마임이스트 고재경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성장했다.

올해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국내 및 아시아 300여 개 문화예술단체, 200여 명의 축제 스텝 및 자원 활동가 그리고 15만 여 명의 축제관람객이 참가했는데 이는 행

사의 질적인 수준뿐 만 아니라 양적 규모에 있어서도 많은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홍대라는 공간적 특성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예술적 표현이라는 행사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객이 모여들어 관심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0회를 맞이한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그간 행사를 치루면서 느낀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올해 안정적인 행사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다양한 공간의 층위 속에서 다양한 층위의 예술들이 자유로움을 가지면서도 모종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행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연구를 위하여 공간 및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장르 간 통합과 새로운 작품 창조를 유도하는 자체 기획물 기획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도로와 공연 공간 간의 흐름이 유기적이지 못하였음.
- 이구동성 프로그램의 경우 입장료 시스템을 현실화하고 다층화할 필요가 있음.
- 행사 기간 동안 홍대의 거리를 문화 생태계로 바꿀 수 있는 공공기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2007 제28차 이아타 세계연극총회 및 세계연극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제28차 이아타(AITA/IATA) 세계연극총회 및 세계연극제
- 기간 : 2007년 7월 29일 ~ 8월 11일
- 장소 : 창원시/마산시 일원
- 주최 : 세계연극협회(AITA/IATA)
- 주관 : 세계연극협회(AITA/IATA) 한국본부/제28차 이아타(aita/iata)  
세계연극총회 조직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5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7. 29 ~ 8. 11) → 서면평가(2007. 9.) →  
평가회의(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7.2/10.0	12.0/15.0	5.0/5.0	24.2/30.0
현장평가		30.8/40.0	22.6/30.0	53.4/70.0
평가결과	7.2/10.0	42.8/55.0	27.6/35.0	77.6/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1/7.0
	2.중장기 계획여부	2.1/3.0
B.사업운영	1.운영 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 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 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5.0/5.0
평가결과		24.2/30.0

◦ 현장평가결과 (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3/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3.7/5.0
	3.홍보의 적합성	4.1/5.0
	4.사업충실도	4.5/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3/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4.6/6.0
	7.관객 서비스	5.3/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2/7.0
	2.사회적 파급효과	4.4/6.0
	3.예술교류 기여도	3.8/5.0
	4.예술적 완성도	4.4/6.0
	5.관객 참여도	4.8/6.0
평가결과		53.4/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이아타는 세계적인 아마추어 연극협회이며 이전에는 외국의 작품을 소개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를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아마추어 연극인들은 연극의 저변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관객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는 그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고지원 시부터 행사 직전까지 행사의 명칭과 성격을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음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였고 행사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국고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뚜렷한 성격을 갖지 못했는데 이는 주최 측이 국가위상을 높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거창한 명분을 연극제의 효과와 전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거창하고 막연한 명분이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하여 국내의 아마추어 연극을 활성화시키고 연극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행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세계의 아마추어 연극인들과 국내아마추어 집단 간의 교류를 통해 연극 분야의 시민참여 영역을 넓히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 사업운영

행사 목표의 모호함은 바로 행사의 내용과 연결되었다. 창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내 초청 공연은 대중성을 확보한 기성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마산에서 이루어진 공연들은 순수한 아마추어 작품으로 많은 관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해외참가작들은 동호회 성격으로 직장이나 각자의 직업이 있으면서 연극을 하는 아마추어 그룹의 작품인 반면, 한국의 작품들은 대중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프로극단의 작품들을 초청하였다. 아마추어 행사에 프로 극단이 들러리를 선 양상이 되었다. 해외 참가 작품은 대체로 실험적이며 워크숍 성격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사 위주로 만들어진 작품들조차 해석 프로그램이나 자막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무대 장치·조명 등의 수준도 매우 낮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행사는 행사 명칭부터 왜곡하여 홍보하는 등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전혀 다른 성격의 행사를 한 프로그램에 모으는 등 부실한 진행능력을 보여준 행사라고 판단된다.

## □ 사업성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운영은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고 비조직적이었다. 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는 규모의 조직을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행사장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상당히 적었고, 현장에서의 안내나 진행 역시 매우 미흡하였다. 행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운영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진행미숙과 공연일정 변경에 대한 불만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야외무대 공연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언제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는지 진행요원조차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총회의 폐막식이 사전 예고 없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마산과 창원에서의 이분화 된 공연 양상과 마찬가지로 행사 진행 역시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다. 총회가 열리는 행사장 주변의 홍보는 활발했던 데에 비해 올림픽 공연장은 안내 유도물을 거의 발견 할 수 없는 등 ‘세계연극제’와 관련된 홍보물

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관객 역시 국내작품에만 몰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아타 세계연극총회 및 연극제는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기량을 실험하는 단체 내부적인 성격이 강한 행사이다. 따라서 이를 전체 국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제로 확대하는 것은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아타 연극 총회 및 세계연극제는 정체성을 명료하게 갖고 그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행사는 아마추어 연극인을 위한 축제이므로, 행사의 취지에 맞게 아마추어인들의 교류에 중점을 두어야 함.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문화 향수권 확대· 아마추어 연극의 의미· 예술 교육의 의미와 그 효과 등에 대한 학술 행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권고함.
- 연극공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다고 판단됨. 국제연극제를 유치할 수 있는 공연시설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앞서 언급한 마산과 창원 시간 프로그램 및 진행의 양극화는 인프라의 양극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마산지역의 공연장 환경 개선 및 국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공연장 조건의 확보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이므로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요청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제11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11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
- 기간 : 2007년 8월 16일 ~ 8월 25일
- 장소 : 수원화성 일대 (장안공원, 장안문, 화서문, 북포루, 북서포루, 방화수류정),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청소년문화센터
- 주최 : 수원화성문화재단
- 주관 : 제11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8. 16 ~ 8. 25) → 서면평가(2007. 9.) → 평가회의(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4/10.0	14.0/15.0	4.0/5.0	26.4/30.0
현장평가		33.3/41.0	22.9/29.0	56.2/70.0
평가결과	8.4/10.0	47.3/56.0	26.9/34.0	82.6/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0/7.0
	2.중장기 계획여부	2.4/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4.0/5.0
평가결과		26.4/30.0

◦ 현장평가결과(가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6/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2/5.0
	3.홍보의 적합성	3.9/5.0
	4.사업충실도	4.7/6.0
	5.공간구성의 적절성	4.2/5.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2/6.0
	7.관객 서비스	5.5/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6/7.0
	2.예술교류 기여도	3.8/5.0
	3.예술적 완성도	4.3/5.0
	4.관객 참여도	5.0/6.0
	5.지역연계성	4.2/6.0
평가결과		56.2/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올해로 11회를 맞은 수원화성국제연극제는 연혁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Site Specific’ 공연예술축제로서 다른 연극제와 차별화된 정체성을 유지해가며 성장하고 있고, 지역민의 문화향수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국내외 공연 팀의 구성비율과 젊은 연출가들의 참여, 대학생 쇼케이스 등의 하부 아이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내용·형식면에서 다른 연극제와 확연한 변별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된다. ‘화성’이라는 공간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수원화성국제연극제만의 아우라를 확보하기에는 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7수원화성국제연극제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된 Vision 2007(미래지향적 다양한 공연언어 수용,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공연예술가 및 작품 발굴: 작품제작소의 역할, 복합 장르적 탈장르적 공연 구성)은 본 축제가 가고자 하는 기본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07’ 올해의 비전이기 보다는 ‘수원화성국제연극제’의 중장기적 비전 혹은 과제로 보인다. 해마다 관성적으로 차용하는 형식적인 공문구로서의 비전이 아닌 ‘2007’의 비전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보다 구체적인 언어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맥락에서, 관객동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객개발과 공연프로그램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수원화성국제연극제가 지향하는 목표 관객층의 설정과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 □ 사업운영

공식초청작 6개국 11개 작품과 기획공연, 부대행사로 구성된 올해 공연 프로그램의 예산비율은 전체예산(5억5천여만 원) 대비 약 45%였다. 10일간의 축제기간에 비해 작품 수가 다소 적게 느껴지긴 하지만 전문적인 연극제답게 공연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축제 규모를 고려해볼 때 이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여 진다.

프로그램의 경우, 수원화성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식(복합, 탈장르 등)의 공연이 이뤄졌고,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다만 축제분위기를 살리면서 관객 혹은 주변 지역민과 가볍게 소통할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이 취약했고, 관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연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일부 프로그램(예를 들어 멀티미디어아트 ‘한여름 밤의 꿈’)은 전문 연극제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한편, 홍보와 운영 관련해서는 안내서비스(안내표지판 포함)가 미흡한 편이었고, 축제의 전반적 운영 또한 안정감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다소 소극적이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자원봉사단(M.A.R.S.)의 운용은 높이 평가할만한 시도였다.

작년부터 도입된 예술감독제는 전문 연극제로서 당연한 선택으로 보여 지며, 기획과 운영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부예술감독의 선임도 고려해보면 좋을 듯하다.

## □ 사업성과

전반적으로 많은 관객이 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행사장소가 서

울과 그리 멀지 않아 접근성이 높고 대중적인 호응과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품 선정, 수원화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프라와 연극 공연의 조화, 그리고 공연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한 것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국내외 단체들의 거리극 형식 공연이 관객들의 호기심을 유도했다.

축제의 짜임새와 완성도는 대체로 무난한 편이었지만, 중량감 있는 핵심 프로그램이 없어 국내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엔 다소 미흡했고, 거리극이라는 특성상 대중적 재미와 가치는 있었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준 작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수원화성의 공간성과 수원의 지역성을 축제 속에 충분히 녹여내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개별 공연에 대한 만족도 및 호응도와는 별개로 축제전반의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축제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공간 전략의 모색, 부대프로그램의 적절한 활용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내용·형식면에서 여타 유사 연극제와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았음. 수원화성국제연극제만의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창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실행계획이 관념적이고 모호함. 실현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보다 구체적인 언어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수원화성’이라는 장소성과 지역성을 살리는 기획이 필요함.
- 비중 있는 핵심프로그램이 부재함. 축제가 발전하고 나름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축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함.
- 축제분위기를 살리면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부대프로그램이 취약했음.
- 각 공연장 간의 동선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시스템, 서비스의 미흡으로 축제의 긴밀성과 통일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음. 셔틀버스 등을 통한 이동편의 제공과 홍보 전략이 요구됨.
- 공연 프로그램의 구성과 배치가 다소 평면적이었음. 연극 마니아층과 애호가들의 집중 관람을 이끌어내고, 일반 시민들의 공연 관람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주말 프로그램을 낮 시간대 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야외’ 공연 관객개발 및 재생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함.
- 축제에 대한 비평이 부재함. 비평(혹은 감상) 자체가 대중과의 소통 정도, 축제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의 의미를 갖는 만큼 비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축제홈페이지 안에 비평게시판을 개설(축제기념품 제공 등의 경품이벤트 병행)해 아마추어 비평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모니터링이나 비평을 담당하는 자원 활동가 그룹을 별도로 모집,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 2007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 2007
- 기간 : 2007년 8월 10일 ~ 8월 14일
- 장소 : 양평군 양서면 일대의 주행사장(두물머리, 세미원,  
양서문화체육공원, 오데뜨 정원, 애벌레생태학교,  
한강물환경연구소) 및 양평읍 갈산공원, 용문다문초등학교
- 주최/주관 : 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집행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8. 10 ~ 8. 14) → 서면평가(2007. 9.) →  
평가회의 (2007.11.)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9/10.0	13.0/15.0	5.0/5.0	26.9/30.0
현장평가		36.2/41.0	26.2/29.0	62.4/70.0
평가결과	8.9/10.0	49.2/56.0	31.2/34.0	89.3/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3/7.0
	2.중장기 계획여부	2.6/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5.0/5.0
평가결과		26.9/30.0

◦ 현장평가결과(가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2/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5/5.0
	3.홍보의 적합성	4.0/5.0
	4.사업충실도	5.4/6.0
	5.공간구성의 적절성	4.7/5.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2/6.0
	7.관객 서비스	6.2/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5/7.0
	2.예술교류 기여도	4.0/5.0
	3.예술적 완성도	4.3/5.0
	4.관객 참여도	5.6/6.0
	5.지역연계성	5.8/6.0
평가결과		62.4/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는 야외공연축제로서 지자체의 정책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연, 생태환경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는데, 이는 지역연계성 측면에서 국고지원목적에 부합한다고 본다.

본 축제는 남양주야외공연축제 때부터 여타 축제와는 다르게 자연·인간·예술이 결합된 야외공연축제로서의 차별성과 참신성을 드러내왔다. 양평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결합된 올해 축제 역시 이러한 맥락을 살리면서, 양평이라는 자연 환경과의

효과적인 결함을 통해 장기적으로 행사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프로그램 구성 및 축제장소의 활용, 다양한 관객층 등에서 지역 및 지역민과의 연계성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올해가 양평에서 행사가 열린 첫 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축제의 비전이 지역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및 원활한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 □ 사업운영

5억여 원으로 추진된 본 축제는 예산규모에 비해 프로그램이 풍성한 편이었고, 예산운용과정도 비교적 투명했다고 판단된다. 축제운영조직은 기존의 남양주야외공연축제 때부터 축적된 행사 운영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좋지 못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되나, 새로운 환경을 기반으로 급하게 조직된 축제 조직은 매끄럽지 못한 공연 진행과 프로그램 일정 변경, 공연제목의 잘못된 표기 등 부분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우천 상황은 야외 축제가 고질적으로 가진 리스크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프로그램은 축제의 주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풍성한 편이었지만, 일반 대중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 점이 아쉬웠다. 이런 측면에서 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의 주요 관객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평이라는 새로운 지역 환경의 다양하고 넓게 펼쳐진 축제 장소(festival site)는 축제 프로그램을 참신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장소간의 연계성을 떨어뜨리고 원활한 이동을 어렵게 하였다. 때문에 축제 공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메인 행사장이라 할 수 있는 양서문화체육공원은 야외공연축제로서의 다소 정형화된 행사장의 인상을 주었으며, 행사장 밖으로 통제되지 않는 먹거리 장터와 각종 놀이기구, 특히 축제관련 교통을 통제하는 해병대자원봉사자들의 위압적 모습은 자연·인간·예술을 표방하는 국제적 야외공연축제와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 □ 사업성과

새로운 축제 환경, 축제 기간의 잦은 호우 등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당초 목표했던 바를 비교적 잘 구현하였으며 또한 축제를 찾아온 외부 관객들을 포함 지역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끌어내는 등 전반적으로 그 성과가 높았다고 평가된다. 양평군이라는 환경과 더욱 밀착하여 행사를 잘 정착시킨다면 앞으로 축제의 완성도나 지역연계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두물머리, 고가 밑, 오데뜨 정원, 세미원 등 새롭게 펼쳐진 분산된 야외공연공간은 축제에 새로움을 주었지만 안내 및 이동 수단(특히 야간)이 미흡하여 불편하였음.
- 본 축제는 야외 행사이므로 우천 상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요청됨.
- 홍보 면에서 보다 일관되고 세련된 시각적 이미지를 구현하고, 홍보물(오프라인의 각 매체, 온라인의 정보 등)에서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 과천에서 남양주 그리고 양평으로 이어진 본 축제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온 주최 측의 의지를 지속시킬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봄. 이를 위해 한 축으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하며, 내적으로는 축제운영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축제운영조직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봄.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여성국극 ‘춘향전’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여성국극 ‘춘향전’
- 기간 : 2007년 5월 9일
- 장소 : 국립국악원 예악당
- 주최/주관 :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5. 9) → 서면평가(2007. 8.) → 평가회의  
(2007.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0/10.0	13.0/15.0	5.0/5.0	26.0/30.0
현장평가		32.7/40.0	24.6/30.0	57.3/70.0
평가결과	8.0/10.0	45.7/55.0	29.6/35.0	83.3/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7/7.0
	2.중장기 계획여부	2.3/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4.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2.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5.0/5.0
평가결과		26.0/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7/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2/5.0
	3.홍보의 적합성	3.7/5.0
	4.사업충실도	4.9/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7/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0/6.0
	7.관객 서비스	5.5/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8/7.0
	2.사회적 파급효과	4.6/5.0
	3.예술교류 기여도	4.0/5.0
	4.예술적 완성도	5.0/6.0
	5.관객 참여도	5.2/6.0
평가결과		57.3/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여성국극이라는 장르가 가진 역사적·공연예술사적인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본 장르가 가지고 있는 예술·사회·역사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가치나 표현방식, 양식적인 가능성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개발하느냐는 중요한 정책적 고려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국극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 전통이 과거의 어느 특정 시점을 수용하는 공시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정신의 통시적 결과

물이라는 점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년 전에 비해 이번 공연에서는 젊은 여성 국극인이 대거 발탁되어 생동감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연출방식도 대중이 원하는, 관객의 취향이 상당 부분 고려된 현대적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예술적 품위와 완성도는 아직도 많이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여성국극의 한국적 정체성과 현대적·서구적 연출 스타일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 진다. 특히 이미 공연되었던 유명 서구 연극들과 유사한 장면 연출은 여성국극이라는 장르의 개성과 정체성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본 장르만이 지닌 미학적 성과와 예술적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 국극 연출가의 양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고민의 부재에서 발생된다고 본다. 즉 사업계획서에 추진방향이라고 적혀 있는 ‘독창적인 세계문화로 발전’이란 구호와 관련된 진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성국극이 국악의 대중적인 측면과 판소리의 서민 정신을 연극적으로 변화시킨 예술이라고 볼 때, 오늘날 국악과 판소리의 대중적인 요소와 연극적 가능성은 무엇일까에 대한 모색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다면 여성국극은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시대정신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원형보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게 될 우려가 있다.

## □ 사업운영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가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대로 우리 문화의 재발견이라면, 사업예산은 일회성의 행사 차원을 넘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운영 전반(무대 미술이나, 조명, 의상 등까지 모두 포함된)의 무게중심을 창조적인 작업 쪽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국극 제작진을 보면 중요한 역할은 대체로 남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여성국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역량 있는 여성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술총감독과 작창은 여성이 맡고 있지만, 연출·각색·연기지도·조연출·무대제작·의상제작·음향감독·조명감독·홍보이사 등은 남성들이다. 현장 운영은 전반적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였다. 현장에서 행사 현수막이나 안내 표지를 찾기가 어려웠고, 극장내부의 좌석 교환 창구에서는 예매권과 초대권 소지자들을 분리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지면 프로그램도 너무 간단하게 출연진만 나열해 놓은 정도였는데, 여성국극을 잘 알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수록과 세련된 디자인·편집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연 중에 한국어와 영어자막 안내가 된다면 관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공연지원분야 관계자들의 태도도 좀 더 세련되고 친절해져야 한다고 본다.

## □ 사업성과

관객들의 호응은 매우 좋았다고 본다. 그러나 대상 관객이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향수와 기억을 지닌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성국극의 미래를 단순히 밝게만 볼 수는 없게 한다. 현재 관객층의 호응도만으로는 공연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마케팅을 보다 다양한 대상과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무대예술의 표현 방식과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의 경극이나 일본의 가부키처럼 양식화되어 있지 않은 여성국극에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는 드라마투르기를 도입하거나 극음악의 다양한 연출 기법을 수용하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무대디자인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여성국극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세미나나 학술 토론회를 통해 여성국극의 대중화를 위한 적극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행사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며, 원형 보존에서 벗어나 예술적 다양성과 실험정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 개발과 음악적인 표현영역 확대 등 무대예술 표현방식 개발을 위한 예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봄.
- 국악계뿐만 아니라 언론 및 일반 관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운영 조직의 전문화 및 체계화가 요청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제8회 영호남연극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8회 영호남연극제
- 기간 : 2007년 9월 1일~ 9월 6일
- 장소 : 순천문화예술회관, 동천수변생태공원
- 주최 : 연극제조직위원회, 전라남도, 순천시
- 주관 : 한국연극협회 순천지부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9. 1 ~ 9. 6) → 서면평가(2007. 10.) →  
평가회의(2007.11.)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7.1/10.0	11.0/15.0	3.0/5.0	21.1/30.0
현장평가		29.9/41.0	21.6/29.0	51.5/70.0
평가결과	7.1/10.0	40.9/56.0	24.6/34.0	72.6/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0/7.0
	2.중장기 계획여부	2.1/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4.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1.0/2.0
	5.재원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3.0/5.0
평가결과		21.1/30.0

◦ 현장평가결과(가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0/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3.5/5.0
	3.홍보의 적합성	3.3/5.0
	4.사업충실도	4.4/6.0
	5.공간구성의 적절성	3.5/5.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4.8/6.0
	7.관객 서비스	5.4/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4/7.0
	2.예술교류 기여도	3.8/5.0
	3.예술적 완성도	3.8/5.0
	4.관객 참여도	4.2/6.0
	5.지역연계성	4.4/6.0
평가결과		51.5/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영호남연극제에 대한 국고지원이 결과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순천과 진주지역 연극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본 행사의 배경에는 예술적인 동기보다 ‘영호남 화합’이라는 명분이 더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특히 올해 행사는 문화예술 향수권 확대, 예술분야 기여라는 국고지원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행사는 영남과 호남지역의 단체들이 참여한다는 점 이외에는 유사 공연예술행사와의 차별성을 찾기가 힘들다. 영호남 화합이라는 행사의 동기가 어느 시점까지

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순천시와 진주시에서 격년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시스템에서는 행사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 사업운영

올해 행사는 한국연극협회 순천시지부가 주관했다. 우천이라는 악조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행사를 통해 드러난 집행부의 운영능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행사 컨셉과 콘텐츠 사이의 관련성이 밀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행사의 메인 콘텐츠는 연극이 다수이기는 하였지만, 연극제라고 하기 보다는 주민 축제형 성격의 콘텐츠들이 더 눈에 띄었다. 지역 여건상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도 있으나, ‘연극제’라는 축제의 타이틀에 부합되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행사장으로 설정된 장소는 산책이나 운동을 나온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이러한 곳을 선택한 것은 장소의 특성을 잇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연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공간이었다. 특히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차량 등이 만들어내는 소음은 공연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컸다. 또한 행사장 설정은 행인들의 동선을 가로 막는 바람에 공연 관람 분위기 형성을 어렵게 하였으며, 애초에 그 장소는 주차장, 화장실 등 관객 편의시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홍보 면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은 우선 행사 전용 홈페이지가 없이 포털사이트의 카페만을 운영한 점이다. 또한 지역 신문을 제외하고는 홍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찾기 힘들었으며 현장에서도 주행사장 내의 종합 홍보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부행사장(문예회관)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사이의 연계 홍보를 위한 장치를 찾기 어려웠다. 또한 우천 상황으로 인한 행사장 변동에 대한 안내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력 역시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 □ 사업성과

올해 행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행사 기간 내내 거의 계속된 우천이라는 악조건을 감안해야 한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으므로, 그러한 과정상의 어려움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행사에 대한 목적의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백화점식 행사 구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내 극장에 적합한 작품을 무리하게 야외 행사장에서 공연하도록 한 것, 조야한 무대 배경 등은 행사의 예술적 완성도에 지장을 주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관람함으로써 지역 연극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개막식 때에는 중앙의 유명 연극인들이 다수 참석하였으나, 정작 행사의 주역이라 할 영·호남 지역의 연극인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지역 연극인들의 교류를 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연 본 행사의 주체가 누구이며 또 누구를 위한 행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우천이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개막식이나 학술 행사, 공연 등에 참가한 관객의 수는 적었으며 호응도도 낮았다.

순천과 진주 양 도시에서 번갈아 행사가 열리는 현 시스템은 연극인들의 교류를 돕고 양 지역 사회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올해 행사에서는 그러한 목표와 전망을 세우려는 노력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영호남 화합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 행사 개최의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앞으로 행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사 개최 정당성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
- 본 행사는 지역의 여건을 볼 때 ‘연극제’라는 애초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부터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지역 연극의 열악함, 관객의 절대적인 부족, 집행부의 행사 운영 능력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연극 등 공연을 위한 주행사장 공간구성의 개선이 필요함. 행사장이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소음 등 관람 환경이 열악하며,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역시 개선을 요함. 특히 실내무대에 적합한 작품을無理하게 야외에서 공연 할 경우 예술적 완성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행사가 순천과 진주 양 도시에서 번갈아 가면서 열린다는 점에서 행사 집행조직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집행조직과 체계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제6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6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 기간 : 2007년 5월 11일~ 5월 27일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소극장, 야외무대, 전시장), 직동공원,  
의정부시내 일원
- 주최 : 의정부예술의전당
- 주관 :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5. 11 ~ 5. 27) → 서면평가(2007. 8.) →  
평가회의(2007.11.)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9.0/10.0	14.0/15.0	5.0/5.0	28.0/30.0
현장평가		36.6/41.0	25.6/29.0	62.2/70.0
평가결과	9.0/10.0	50.6/56.0	30.6/34.0	90.2/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4/7.0
	2.중장기 계획여부	2.6/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확보율	5.0/5.0
평가결과		28.0/30.0

◦ 현장평가결과(가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5/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2/5.0
	3.홍보의 적합성	4.4/5.0
	4.사업충실도	5.5/6.0
	5.공간구성의 적절성	4.3/5.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4/6.0
	7.관객 서비스	6.3/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1/7.0
	2.예술교류 기여도	4.2/5.0
	3.예술적 완성도	4.3/5.0
	4.관객 참여도	5.6/6.0
	5.지역연계성	5.4/6.0
평가결과		62.2/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우선 ‘음악극’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음악극 발전의 베이스캠프’라는 축제 위상 정립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극 소개, 상업적 뮤지컬 보다는 예술성 높은 작품 지향, 국내 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구성, 한국형 창작음악극 제작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세계시장 진출 모색’ 등의 목표를 제시한

것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올해 축제가 이런 목표에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의도에 맞고 또 일관성 있게 짜여졌다. 음악극 축제라는 것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면 국내 축제로서는 비교적 잘 된 행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음악극을 놓고 볼 때, 한국에서 음악극 축제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하는 점에서는 답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그냥 해외의 신작 음악극을 소개하는 정도일 뿐, ‘국내 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구성’이나 ‘한국형 창작음악극 제작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새로운 흐름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으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토대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즉,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축제가 되려고 하기 보다는 세계적인 음악극축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고민이 더 중요하며,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 또한 그런 방향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 축제와 시민과의 만남 혹은 시민참여 방식이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축제의 성공요인이 되는 음악극이라는 테마가 실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만나는 지점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 □ 사업운영

사업운영 부문에서 관객서비스와 사업 충실도에 대해서는 모두 좋은 평가를 내렸다. 조직의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타 축제와는 다르게 의정부예술의전당 조직이 축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이 안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오랜 기간 축제 예술 감독의 공백이 있었다는 점과 행사를 불과 3~4개월 앞두고 축제 조직이 구성되는 구조로 인해 조직이 불안정하다고 본 의견도 있었다.

공간구성의 적절성과 지역연계성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무난하게 보일지라도, 축제 전체가 의정부예술의전당이라는 큰 공간 하나만을 가지고 버티는 느낌이 있고, 다양한 공간에서 축제 콘텐츠를 어떻게 시민들과 만나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안일하게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외국 작품을 잘 섭외하여 진행하고, 지역에 안착하는 인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예산집행의 적절성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부대행사를 제외하고 축제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해외 5작품과 국내 5작품이 전체 예산에 비해 그 수와 작품의 중량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다른 축제의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도 빈약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의정부예술의전당 조직과 예술 감독의 역량, 그리고 6년간의 경험을 반영하듯 전반적인 축제운영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나 행사의 진행, 홍보 면에서 매끄러운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다.

## □ 사업성과

축제 관객이 2004년 이후 50% 정도 늘었다는 것은 최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소비경향을 상당히 흡수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음악극이 대중적인 테마가 아님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숲 속의 음악회나 빅스테이지 등에서 지역 문화단체나 시민의 참여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또한 메인 프로그램은 조금 미흡했지만 축제 전반에 걸쳐 균형 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이려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즉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체험행사 등 축제 주변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관객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려 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프린지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관객의 참여가 늘었다는 것은 시민 참여형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며, 메인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축제의 완성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의지를 축제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다양하게 승화시켜나가는 능력은 부족해 보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컨대 워크숍은 일반시민과 전문예술인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여, 참가극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많은 인원이 참여했던 오페라 카르멘의 경우, 음악극축제를 개최하는 도시의 오페라라고 하기에는 실험성이나 연극적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를 개최해온 성과가 그 도시의 음악극을 대표하는 예술단체의 콘텐츠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축제의 정당성이 도전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축제의 인상은 너무나 깔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본 축제가 상품화된 콘텐츠를 변별하고 구성하는 능력은 있어도 상품화되지 않은 삶의 콘텐츠를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축제의 장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화, 프로그래밍,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지원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함. 로드맵에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세계적인 음악극 축제로서의 정체성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한 계획.
  - 국내 음악극 발전의 베이스캠프라는 목표설정과 관련한 명확한 미학적 방향.
  - 축제의 성과가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변화시키는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기획.
- 차제에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축제조직의 상호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한 역할 분담은 ‘의정부예술의전당 운영’과 ‘축제운영’이라는 각각의 본연의 영역이 모두 성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함.
- 축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술감독이 자주 바뀌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축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임기 및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축제 하부조직도 안정을 기하기 위해 상설인원의 증원도

요구됨.

-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장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작품에 대한 상세한 사전 설명이 요구되는 작품들이 있었으나 주최 측이 제작한 프로그램 책자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경우가 많았고, 관객과 출연자 혹은 연출자와의 대화 등 관객의 이해를 돕는 장치들이 부족하였음.
- 전시 부분에서는 지역에서 존중 받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세계 음악극과 관련한 전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제20회 전국민족극한마당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20회 전국민족극한마당
- 기간 : 2007년 7월 26일 ~ 8월 12일
- 장소 : 목포 유달 예술촌, 모심아트센터, 증평 보강천변, 예술공장 두레,  
성주군 성박숲과 그 일원, 금수문화예술마을
- 주최 :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 주관 : 전국민족극한마당 집행위원회 (산하 3개 지역 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5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7. 26 ~ 8. 12) → 서면평가(2007. 10.) →  
평가회의(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7.4/10.0	14.0/15.0	4.0/5.0	25.4/30.0
현장평가		32.1/41.0	23.0/29.0	55.1/70.0
평가결과	7.4/10.0	46.1/56.0	27.0/34.0	80.5/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4/7.0
	2.중장기 계획여부	2.0/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노력	2.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4.0/5.0
평가결과		25.4/30.0

◦ 현장평가결과(가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7/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3.9/5.0
	3.홍보의 적합성	3.8/5.0
	4.사업충실도	4.6/6.0
	5.공간구성의 적절성	3.8/5.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4.8/6.0
	7.관객 서비스	5.5/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5/7.0
	2.예술교류 기여도	4.1/5.0
	3.예술적 완성도	3.9/5.0
	4.관객 참여도	4.8/6.0
	5.지역연계성	4.7/6.0
평가결과		55.1/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올해 전국민족극한마당은 목포, 증평, 성주 이 세 곳에서 열렸는데 당초 목표와는 달리 분산 개최의 의의와 장점을 살리지 못하였으며, 지역과의 협력 등을 보았을 때 이 세 지역 이 행사 개최지로 적합했는지 의문이다. 지역과 지역의 연결을 전국적인 단위와 규모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공연은 옛 공연과 차별성이 없었으며 신작 공연이 거의 없어서 진부한

행사가 되어버렸는데, 이는 관객을 위한 축제라기보다 공연단체를 위한 축제라는 인상을 주었고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타 예술, 타 장르, 타 지역과의 소통이 부재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국민족극한마당이 표방하는 민족적 양식 창조와 현장성 있는 예술창작의 대원칙이 미흡하며 민족극의 정체성에 관한 담론이 부재하다. 민족극의 정체성 및 사업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형식과 내용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올해 주최 측은 해외의 유사 경향의 작품들과 교류하면서, 민족극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해외 초청 단체와 공동 작업을 통해 민족극 양식의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전통 연희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측면의 교류는 다소 아쉬웠다.

본 행사의 문제점 중 하나는 장기적인 전망이 부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민족극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관한 문제의식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이 부재하다. 주최 측은 시대 상황과 민족극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를 향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실험적인 워크숍 같은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또한 외형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 □ 사업운영

행사 운영의 경우 종합 프로그램 진행이나, 공연과 기타 프로그램 사이의 시간과 거리, 기타 자연 조건을 감안한 운영 프로그램 상의 노하우가 부족하였다.

목포, 증평, 성주 이 세 곳으로의 분산 개최에 대한 유기적 연결성이 부족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경우 민족극 형식에 어긋나는 해외 초청 공연, 세 개 지역에서의 중복된 공연 그리고 단순하고 도식적인 다수의 공연이 펼쳐졌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프로그래머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행사 진행 시 축제 장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였다. 관객을 안내하는 장소 표지판이나 동선 유도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우천 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관객과 어울리는 민족극 한마당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간 운영에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전국민족극한마당의 특징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보의 경우 온라인 구축이 늦어져 온라인을 통한 정보 취득이 어려웠는데, 목포, 성주, 증평을 잇는 온라인 축제 정보와 연계를 통해 각 지역의 강점을 강조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축제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 및 자연환경과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관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관객을 위한 공연이라기보다 공연단체를 위한 공연이 많았으며, 공연 안내, 공연 대기 장소, 공연과 공연 사이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그리고 야외축제에 걸맞은 특화된 먹거리 시설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 성주의 경우, 공연장에 들어선 음식점들은 공연 축제를 통해 이익



을 보려는 지역 상인들의 음식점이었지 축제의 관객을 위한 음식점이라고 보이지 않았다. 축제 당국과 지역 상인들의 협력과 협조가 절실하다.

개선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으로 분산한 축제의 성격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목포의 경우 아트마켓의 기능을 더 부여하고, 증평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 강조하고, 성주의 경우 전국의 공연의 교류 및 발표의 성격을 더 강화한다든지 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 또한 해외 공연단체들과의 공동 워크숍 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축제 개선과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 □ 사업성과

올해 전국민족극한마당의 내용과 형식은 축제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현장을 떠난 과거 민족극 공연의 재공연, 추억-회곡 공연이 주였으며 민족극 전통연희 양식에서 출발하여 당대의 공연양식을 창조한다는 창작 정신을 반영한 공연은 많지 않았다. 대다수의 공연이 대사가 많고 설명적이고 재현적이었는데 이는 전통연희가 가지고 있는 비설명적이고 비언어적이며 압축과 생략, 과감한 비약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그로테스크한 미학적 원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관객 참여도 또한 낮았다. 관객이 없는 행사는 축제로서 의미를 잃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달리 말하면 축제 주최 측의 역량 미흡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낭비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전국민족극한마당 축제여서 참여를 한 것인지,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여 참여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축제 내용의 지역성과 현장성, 시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객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증액하여 축제를 외형적으로 키우기보다는 밀도 있는 축제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애초에 각 지역별로 제시했던 주제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지역별 차별화가 미흡했다. 지역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아트마켓 기틀 마련, 젊은 예술인 발굴, 지역민의 지속적인 문화욕구 해소 등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국민족극한마당’의 정체성에 문제가 제기됨.
- 축제에 참가하는 공연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노력이 없음.
- 반복되는 공연, 재탕 공연 등 관객보다는 공연단체를 위한 축제 성격이 강하게 노출되었음.
- 자체 평가 시스템이 없고, 신작 발표를 위한 실험적인 준비과정이 없음.
-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이 결과적으로는 행사부실을 가져올 만큼 자체 역량에 한계가 있음.

- 행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 집행부의 축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지원과 연계가 절실함.
- 지역 사회,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축제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목포, 성주, 증평의 지역의 성격과 특성에 어울리는 행사가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함.
- ‘전국민족극한마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체적인 성찰과 노력이 요구됨.
- 축제의 기획·운영·지역과의 협력 등 축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제11회 전국청소년연극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11회 전국청소년연극제
- 기간 : 2007년 5월~9월(예선), 2007년 11월19일~11월28일 (본선)
- 장소 : 전국 시·도 16개 지역소재 공연장(예선),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본선)
- 주최 : (사)한국연극협회, (재)대산문화재단, (재)예술의전당
- 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5. ~ 9. , 11. 19 ~ 11. 28) → 서면평가(2007. 12.) → 평가회의 (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8/10.0	14.0/15.0	5.0/5.0	27.8/30.0
현장평가		35.6/40.0	26.0/30.0	61.6/70.0
평가결과	8.8/10.0	49.6/55.0	31.0/35.0	89.4/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2/7.0
	2.중장기 계획여부	2.6/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노력	2.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5.0/5.0
평가결과		27.8/30.0

◦ 현장평가결과(다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1/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3/5.0
	3.홍보의 적합성	4.3/5.0
	4.사업충실도	5.2/6.0
	5.진행여건의 안전성	2.7/3.0
	6.심사기준 및 방식의 적절성	6.9/8.0
	7.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의 적절성	3.6/4.0
	8.관객서비스	2.5/3.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5/7.0
	2.해당분야 기여도	5.6/6.0
	3.경연대회 완성도	5.4/6.0
	4.경연자 참여도	5.2/6.0
	5.관객 참여도	3.3/4.0
평가결과		61.6/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전국청소년연극제는 11회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연극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하였으며, 연극예술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연극교육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바 타 행사와는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행사는 공연예술을 통한 청소년의 전인교육 그리고

전문인 육성을 위한 선행교육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국고지원사업 목표에 부합한다고 본다. 전국청소년연극제는 참가한 학생들에게 사회적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갈등 조절 능력을 습득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에게는 주제의식을 공유하고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되는 인격 장애, 정서적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행사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나 중장기적으로 전국청소년연극제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예선대회와 본선대회가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시상 위주의 대회운영 틀에서 벗어나 행사의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예술교육의 기회제공 및 역할놀이를 통한 공동체 의식강화를 위한 형식 및 내용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 행사는 기성 연극인들에게도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자 외에는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연극인들의 보다 많은 참여가 따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 □ 사업운영

대산문화재단, 한국연극협회, 예술의전당으로 구성된 주최 단체의 행사운영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또한 예선을 진행한 한국연극협회 지역지회의 행사운영 역시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형태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부 지역예선의 경우 행사에 대한 홍보가 원활하지 않고 행사장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본선대회의 경우 행사운영은 전반적으로 원활하였다.

심사위원은 연극계 원로, 극작가, 연출가, 연기자 등 분야별로 잘 안배하여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수상작 선정 및 심사위원 간 의견차를 보인 단체에 대한 토론 그리고 지도자상 및 특별상 선정 등 심사 전 과정에 물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전국청소년연극제가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인 점과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인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7년부터 각 지역 예선대회의 지원금 지원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지역 간 예산 편차가 발생하여 몇몇 지역에서는 예선대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 간 예산 편차는 예산확보 방식의 차이로, 자치단체의 대응투자의 유무 또는 지방문예진흥기금의 확보 유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전체적으로 지역예선의 독자적인 기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선과 본선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원활한 대회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행사 전반에 걸쳐 기성 연극계의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예선과 본선 사이에 기획되어 있는 심포지엄과 국외의 청소년연극관련 인사를 초청해 열었던 연극캠프도 의미 있는 행사 중 하나였으나 그 장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행사 전반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 사업성과

본 행사는 청소년 연극 잔치로서의 의미를 지닌 경연대회로 참가작품 및 참가자

들의 수준이 높았으며 비교적 완성도 있는 행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행사의 직접적인 참가자 이외에 일반인이나 기타 연극인들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특히 방학기간이 아니었으므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관련 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많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학생들에게 연극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인 만큼 행사 활성화와 높은 관객 참여도를 위해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행사가 대체로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나 홍보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특히 연극인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협회차원에서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성 연극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또한 대입수능시험이 끝난 시기에 본선대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동원이 미진했던 점이 아쉬움.
- 본선의 경우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위원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본선 참가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 다양한 지원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본선 참가팀의 참가비 지원 외에, 본선 시 부대요소를 쉽게 동원하지 못하는 학교극의 한계를 보완할 장치마련이 요청됨.
- 예선 및 본선에서 같은 작품을 공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작품 선정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진행하여야 하는 학교극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본선집의 제시 등을 포함한 기성연극계의 체계적 지원이 요청됨.
- 지역 예선 행사의 집행여건과 예산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예선대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불완전하고 지역 간 편차가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요청됨.
- 본 행사가 경연대회를 넘어 청소년들의 연극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연극을 이어주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학생들과 연극인들 간의 대화 시간이나 유명 배우, 연출가와의 자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춘천인형극제 2007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춘천인형극제 2007
- 기간 : 2007년 8월 9일 ~ 8월 15일
- 장소 : 춘천인형극장, 옥림랜드, 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 동부교회, GS마트
- 주최 : (재)춘천인형극제, 춘천시
- 주관 : 춘천인형극제집행위원회, 춘천인형극제협의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8. 9 ~ 8. 15) → 서면평가(2007. 10.) →  
평가회의(2007. 12. )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4/10.0	14.0/15.0	3.0/5.0	25.4/30.0
현장평가		33.8/41.0	23.1/29.0	56.9/70.0
평가결과	8.4/10.0	47.8/56.0	26.1/34.0	82.3/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1/7.0
	2.중장기 계획여부	2.3/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2.0/2.0
C.사업성과	1.관객확보율	3.0/5.0
평가결과		25.4/30.0

◦ 현장평가결과(가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6/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2/5.0
	3.홍보의 적합성	4.4/5.0
	4.사업충실도	4.8/6.0
	5.공간구성의 적절성	4.2/5.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0/6.0
	7.관객 서비스	5.6/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8/7.0
	2.예술교류 기여도	3.8/5.0
	3.예술적 완성도	3.7/5.0
	4.관객 참여도	4.8/6.0
	5.지역연계성	5.0/6.0
평가결과		56.9/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인형극을 연극의 분명한 장르로 만들어 내고, 춘천 지역을 인형극의 중심으로 만든 것은 19년째 지속되어 온 춘천인형극제의 노력 덕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행사는 국고지원 사업으로서의 행사 목적이 분명하며 유사행사와의 차별성 역시 부각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역시 적지 않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듯 하나 이에 따른 타성적인 운영이 발견된다. 또한 작품의 내용 및 형식을 볼 때, 도식적이고 혼계적인 공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미흡하여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또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 □ 사업운영

자원봉사자와 스태프들은 관객에 대한 친절함과 적극성이 부족했으며, 관객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여러 번 눈에 띄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축제가 수용하는 관객 수에 비해 이들을 위한 편의 시설과 휴식 공간이 부족하였으며, 임대를 준 노천 간이음식점은 바가지요금을 책정하는 등 관객서비스 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관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능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국내와 해외 공연 간 초청 비율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공연들은 동일 시간대에 지나치게 중복 편성되어 있어 아이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연 선택 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었으며, 규모가 큰 공연들 위주로 관람이 이루어져서 소규모 공연들은 관객 부채를 겪게 되었다. 공연 내용 역시 유사한 공연들이 많았으며 어린이 관객에게 획일적인 가치관을 강요하고 선악이분법적인 교훈을 주는 공연이 다수를 이루었다. 작품의 수준이 이전 행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우천 시에 대비한 시스템 운영 능력이 매우 미흡하였다. 비가 오면 축제 프로그램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 주최 측은 속수무책 상태처럼 보였다.

## □ 사업성과

안정 지향적이고 타성적인 축제 운영 방식으로는 관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본 행사가 인형극 축제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만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관객이 언제나 어린이들이어야 한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관객 개발을 위한 다종의 공연을 초청하거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내년이면 행사 20주년을 맞게 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행사 완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참가하는 국내 공연들은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하여 천편일률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교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행사의 예술적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관객의 창조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유희적이며 정서적 자유를 주는 공연들을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이나 토론의 장을 통해 관객과 공연자간의 보다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 역시 필요하다. 다

양한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인형극 축제에 대한 이론적인 행사 역시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현재 춘천인형극제는 춘천 지역의 중심적인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춘천이나 강원도 내에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는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획과 아이디어 창출이 전제되어야 하며, 과감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올해 축제의 경우 안정 지향적이었고, 축제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부재하였음. 따라서 축제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함.
- 선악이분법적인 교훈, 설명, 학습의 태도를 지양하고 상상력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연들을 초청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공연 양식을 가진 해외 공연들의 초청이 필요함.
- 성인 관객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인형극 개발이 필요하며, 인형극 관련 이론적인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이 요구됨.
- 운영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관객 편의 시설과 휴게실 부족 문제를 개선해야하고, 야외공연의 경우 우천 시 대비책이 필요함.
- 공연장의 과감한 이동이나 확대가 필요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포항바다국제연극제 2007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포항바다국제연극제 2007
- 기간 : 2007년 7월 29일 ~ 8월 5일
- 장소 : 포항 환호해맞이 공원 내 3개 야외무대(해맞이극장, 달맞이극장, 중앙광장) 및 중앙아트센터
- 주최 : 포항시, (사)포항바다국제연극제 진흥회
- 주관 :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7. 29 ~ 8. 5) → 서면평가(2007. 9.) → 평가회의(2007. 11.)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7.1/10.0	13.0/15.0	5.0/5.0	25.1/30.0
현장평가		31.8/41.0	22.6/29.0	54.4/70.0
평가결과	7.1/10.0	44.8/56.0	27.6/34.0	79.5/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4.9/7.0
	2.중장기 계획 여부	2.2/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5.0/5.0
평가결과		25.1/30.0

◦ 현장평가결과(가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3/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0/5.0
	3.홍보의 적합성	3.9/5.0
	4.사업충실도	4.4/6.0
	5.공간구성의 적절성	4.3/5.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4.2/6.0
	7.관객 서비스	5.7/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6/7.0
	2.예술교류 기여도	3.7/5.0
	3.예술적 완성도	3.7/5.0
	4.관객 참여도	5.2/6.0
	5.지역연계성	4.4/6.0
평가결과		54.4/70.0

## 4. 총평

### □ 사업계획

7회를 맞이한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매년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타 유사행사와 자신을 구별하는 포항바다국제연극제만의 독자적인 컨셉이 없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행사의 성공을 전제한 기대만 나열되어 있을 뿐 장기적 전망을 전제한 구체적 실천과제가 부재하다.

이러한 문제는 그대로 본 행사의 구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뚜렷한 의도에

다른 프로그램 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해외 작품들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발견할 수 없었고, 연극과 댄스, 판소리극 등이 혼재한 프로그램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그 수준을 볼 때 행사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인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이라든지 ‘지역축제를 관광자원 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의 항목들도 행사의 면면을 볼 때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향상’과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로의 승화’ 등은 오히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보여진다. 국제연극제를 지향하기 보다는 포항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살린 지역고유의 문화행사로 축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 사업운영

본 행사의 예산은 도비 및 시비의 지원액은 적고 국비가 전체예산의 50%를 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본 행사가 ‘국제’ 연극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 치우친 ‘지역문화축제’로 뒤쳐지고 만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사 진행을 볼 때 (사)포항바다국제연극제 진흥회가 국제연극제를 치를 만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한동대 학생들의 자원봉사 능력과 활동 영역 역시 대학생으로서의 참신성과 전문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보조적 위치에서 봉사하는데 머물렀다.

사업운영 상 가장 큰 문제는 본 행사의 개최 시기가 ‘포항국제불꽃축제’의 시기와 맞물려 주변적 행사로 비취졌다는 점이다. 포항시 안에서 불꽃축제에 대한 홍보물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포항바다국제연극제의 홍보물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또한 불꽃놀이의 소음 때문에 연극제의 여러 행사들이 그 시간과 공연장소가 자의적으로 변경되어 관객들의 불편함을 가중시켰다.

공연장소의 취약함 때문에 예산의 30% 정도가 공연장 시설에 투입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해맞이공원 내의 공연장과 시내에 위치한 공연장 사이의 유기적 연결이 미흡하여 연극제를 찾은 외부관람객의 경우 하루 한편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사업성과

본 행사의 높은 관객 참여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거의 모든 공연에 관객들이 꽉 찼으며 이는 포항 지역의 문화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대부분 해맞이 공원 주변에 위치한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로 외지에서 온 관람객들은 극히 소수로 보였다.

공연의 예술적 완성도 및 국제연극제로서의 예술교류 기여 측면은 참여한 외국극단의 숫자라든가 공연을 감상한 관객들의 반응들을 보면 일정한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어린이 관객들에게는 부적절한 댄스의 선정적 몸짓과 성적인 내용이 담긴 공연 등을 볼 때 프로그램 구성이 치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통해 볼 때 본 행사가 사업계획서 상에서 설정한 목표들을 온전하게 달성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국제연극제로서의 위상을 높이지 못했고 본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포항바다국제연극제의 기본 컨셉에서 독자성과 개최 필요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음. 다른 유사행사처럼 거대한 외형을 지닌 ‘국제’ 행사를 지향하기 보다는 ‘포항’, ‘바다’, ‘가족’ 등과 같은 이 지역 특유의 고유 정서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함.
- 행사 운영을 볼 때 조직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이 부족함. 국제연극제(또는 지역 고유의 연극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실력 있는 예술 감독과 같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하며 프로그램 구성과 사업 운영, 기획, 홍보 등에서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요구됨.
- 프로그램 구성상의 뚜렷한 기준이 보이지 않았음. 초청된 공연들의 내용이 통일성을 갖지 못하였음. 또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장하는 공연단체들을 초청할 필요가 있음.
- 개최시기가 타 행사와 맞물려 본행사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음. 따라서 ‘포항국제불꽃축제’와 같은 타행사의 개최시기를 고려해 본 행사의 개최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전체 예산에서 국비, 도비 등의 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예산 구조는 향후 행사의 독자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므로 개최단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예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음.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2007 대학로페스티벌

### D.FESTA 어울림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대학로페스티벌 D.FESTA 어울림
- 기간 : 2007년 8월26일, 9월30일, 10월28일
- 장소 : 마로니에 공원 및 대학로 일대
- 주최 : (사)전국소공연장연합회
- 주관 : 2007 대학로페스티벌 D.FESTA 축제집행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5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8. 26, 9. 30, 10. 28) → 서면평가(2007. 11.)  
→ 평가회의(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7.9/10.0	13.0/15.0	5.0/5.0	25.9/30.0
현장평가		31.1/40.0	23.6/30.0	54.7/70.0
평가결과	7.9/10.0	44.1/55.0	28.6/35.0	80.6/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6/7.0
	2.중장기 계획여부	2.3/3.0
B.사업운영	1.운영 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5.0/5.0
평가결과		25.9/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7/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3.7/5.0
	3.홍보의 적합성	3.8/5.0
	4.사업충실도	4.7/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1/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4.6/6.0
	7.관객 서비스	5.5/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6/7.0
	2.사회적 파급효과	4.6/6.0
	3.예술교류 기여도	3.8/5.0
	4.예술적 완성도	4.8/6.0
	5.관객 참여도	4.8/6.0
평가결과		54.7/70.0

## 4. 총평

### □ 사업계획

D.FESTA 어울림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본 행사는 크게 네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 활성화 2) 시민중심의 공연 및 연극의 친밀감 유도 3) 타 장르와의 교류를 통한 연극의 외연 확장 4) 문화지구 대학로의 이미지 재정립. 일단 설정한 목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목표와는 달리 실제 행사 내용은 위의 네 가지 목표 중 3)과 4)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국소공연장연합회라는 조직이 행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1)과 2)는 이번 행사에서 별로 부각되지 않



있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전략적으로 3)과 4)에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1)과 2)를 성취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확인하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3)과 4)의 행사목표만으로도 국고지원사업으로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새로운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사업운영

소극장 알리기 행사는 구색만 갖추었다는 인상을 받았고, 소극장 안내부스 설치도 대학로 극장의 일부만 참여한 행사였기에 행사목표 1)과 2)에 관련한 사업운영 능력은 매우 미흡했다고 본다. 그러나 3)과 4)의 경우에는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천 시의 대비, 세 번에 걸쳐 별다른 변화 없이 반복되는 프로그램, 공연 수준, 행사 도우미의 자질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현장홍보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문제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홍보의 부재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행사의 중·장기 계획의 미흡함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3)과 4)에 집중된 행사의 공공성에 대해 행사조직 내부의 비전이 그리 명확하지 않은 듯하다. 국고지원금의 대부분이 현장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행사에 참여한 공연 팀들은 행사목표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고 행사주체가 대학로 소공연장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얻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이 점이 본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 □ 사업성과

본 행사는 대학로에 활력을 불어 넣기는 했으나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행사목표 1)과 2)를 위해 소극장 안내부스를 설치하고 축제공연과 소극장 공연 사이 영상을 보여주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행사목표 3)과 4)의 경우에도 저조한 관객참여로 인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관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몇 가지 놀이거리를 제공하는 했으나, 폐차 그래피티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기획이었고, 외발자전거 배우기나 비눗방울 놀이체험이 문화지구 대학로의 이미지 재정립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메인 스테이지나 서브 스테이지 공연의 예술적 완성도는 낮았다고 생각된다. 거리공연은 관객이 관람하기에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공연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상정적인 것으로 D.FESTA 어울림이 의도한 거리축제가 대학로라는 공간에 적절한가, 혹은 더 나아가서 행사의 공공적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 행사주체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학로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함. 행사주체인 전국소공연장연합회를 중심으로 대학로의 90개가 넘는 소공연장의 행사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연극의 대중화와 외연확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축제에 참여하는 공연팀들의 행사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축제공연과 소극장 공연 간의 긴밀한 연계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문화지구 대학로의 이미지 재정립을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함. 대학로라는 공간에 대해 이해하고 그 공간에 적절한 축제 양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이와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풀어갈 핵심적인 집행위원회와 실행력 있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대학로에 위치한 소공연장, 상점, 음식점, 문화나 교육단체, 서울시나 종로구 등의 관련 부서를 엮는 하나의 긴밀한 협조체계 수립이 요청됨.
- 자원봉사자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제전통을 형성하고 홍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축제 시기나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음악분야**

## **(12개 사업)**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2007 경남국제음악콩쿠르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경남국제음악콩쿠르
- 기간 : 2007년 10월 28일 ~ 11월 4일
- 장소 :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 대전예술의 전당
- 주최 : 경상남도(대회장: 경상남도지사), 통영시, 마산MBC
- 주관 : (재)통영국제음악제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10. 28 ~ 11. 4) → 서면평가(2007. 11.) → 평가회의(2007.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6/10.0	13.0/15.0	4.0/5.0	25.6/30.0
현장평가		34.8/41.0	25.9/29.0	60.7/70.0
평가결과	8.6/10.0	47.8/56.0	29.9/34.0	86.3/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0/7.0
	2.중장기 계획여부	2.6/3.0
B.사업운영	1.운영 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4.0/5.0
평가결과		25.6/30.0

◦ 현장평가결과(다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8/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5/5.0
	3.홍보의 적합성	3.7/5.0
	4.사업충실도	5.1/6.0
	5.진행여건의 안전성	2.2/3.0
	6.심사기준 및 방식의 적절성	7.1/8.0
	7.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의 적절성	3.9/4.0
	8.관객서비스	2.5/3.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3/7.0
	2.해당분야 기여도	5.4/6.0
	3.경연대회 완성도	5.6/6.0
	4.경연자 참여도	5.4/6.0
	5.관객 참여도	3.2/4.0
평가결과		60.7/70.0

## 4. 총평

### □ 사업계획

경남국제음악콩쿠르는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된 내용을 볼 때 예산이 계속 뒷받침 된다면 우리나라 주요 국제 콩쿠르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수준은 국제무대에서 손색이 없으며 금년도 참가자들의 수준 역시 다른 어느 국제콩쿠르의 수준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본 행사는 문화예술향수권 확대와 예술분야 진흥이라는 국고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라 볼 수 있으며 때문에 본 행사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국제콩쿠르로서의 확실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콩쿠르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윤이상이라는 이름의 브랜드화 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행사의 비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 사업운영

참가자들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심사위원 선정방식도 적절하였으나, 주최 측의 세부행사진행은 매끄럽지 못했으며 그 수준이 미흡하였다. 가령 프로그램 인쇄물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연주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연주자들이 출연할 때마다 국적, 연주곡목 등을 소개하는 진행요원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결선 도중 무대 스피커에서 나오는 잡음을 연주자가 연주를 마칠 때 까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되었다. 경연자 연주 도중 관객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고 보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었으며, 유료입장 공개연주회임에도 불구하고 반주자 악보 넘기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오르는 등 매우 미숙한 진행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행사는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며, 행사 연혁에 비해 홍보가 잘 안되어 관계자들 외에는 행사에 대해 잘 모르는 등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다는 인상을 받았다.

## □ 사업성과

비록 행사 진행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권위 있는 심사위원 구성과 비교적 수준 높은 경연자들의 참가 및 공정한 심사결과 등으로 인해 국제콩쿠르로서의 높은 완성도와 기여도를 보여주는 등 경연대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남국제음악콩쿠르가 높은 행사 완성도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관객 동원이나 지역에서의 국제콩쿠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부분에서는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관객이 예전에 비해 늘어났고 1·2차 예선보다는 결선 때 많은 관객이 참석하였으나, 지역주민들보다는 주로 참가자 주변 인물이거나 경연분야와 관련된 국내 전공학생들이 대부분이며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국제 윤이상 음악상’이 경연대회라는 전문적인 행사이고 ‘통영시’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지만 행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좀 더 폭넓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영이 윤이상의 고향이라는 점과 지역성을 십분 살려야 하며, 지방소도시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의 음악전공학생들을 참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콩쿠르로서 좀 더 발전하기 위하여 타 콩쿠르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이를 위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행사명으로 ‘윤이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행사의 국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제콩쿠르의 권위와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설 오케스트라의 협연이 필요함.
- 지역 사회에 대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며, 홍보를 전담하는 인력들이 잡지, 방송, 신문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음. 특히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필요함.
- 경연대회가 가지는 한계가 있지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콩쿠르로서 좀 더 많은 관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행사진행 및 관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2007 고궁가족음악회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고궁가족음악회
- 기간 : 2007년 5월 ~ 6월 매주 토요일
- 장소 : 경복궁 내 쉼터각사터
- 주최 : 문화관광부
- 주관 : 판کم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5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5. ~ 6.) → 서면평가(2007. 10.) → 평가회의(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6/10.0	12.0/15.0	3.0/5.0	23.6/30.0
현장평가		34.7/40.0	25.5/30.0	60.2/70.0
평가결과	8.6/10.0	46.7/55.0	28.5/35.0	83.8/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1/7.0
	2.중장기 계획여부	2.5/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3.0/5.0
평가결과		23.6/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2/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3/5.0
	3.홍보의 적합성	4.1/5.0
	4.사업충실도	5.5/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4/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2/6.0
	7.관객 서비스	6.0/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2/7.0
	2.사회적 파급효과	4.9/6.0
	3.예술교류 기여도	4.1/5.0
	4.예술적 완성도	5.0/6.0
	5.관객 참여도	5.3/6.0
평가결과		60.2/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대표적인 유적지인 경복궁을 찾은 내외국인들에게 동양과 서양의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한 의도는 높이 평가할만했다. 전체 프로그램은 각 장르별 국내 공연단체를 집합적 형태로 구성하였고 회차별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문화예술향유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며 또한 경복궁 고유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역사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공연 예술 장르들이 어우러짐으로써 문화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장기적으로 이 행사가 비전을 가지고 공연의 전체적인 수준을 향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목표에 비해 실제 공연의 완성도나 매끄러움은 아직 출발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이 짙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국고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공간인 경복궁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경복궁이라는 장소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제공된 공연 중에는 이러한 특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공연들이 있었으며 또한 공연예술축제와 별 차이가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일반적인 시민 위안공연과는 차별화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역사적인 장소에서 한국의 오랜 역사를 통한 우수한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획이 요청된다. 또한 주최 측이 추구한 “모두가 웃고 즐기고 떠들 수 있는 공연” 보다는 보다 품위 있는 우리 문화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연이 필요하다고 본다.

## □ 사업운영

회차마다 진행방법과 공연의 수준이 편차를 보이는 점이 아쉬웠다. 공연 기획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우수한 기획사가 일관성 있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공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체 예산에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출연자에 대한 고액의 출연료 지급을 지양하고, 많은 출연자들을 무대에 올리는 데에서 야기되는 지출을 줄이면서도 공연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 공연당 입장 관객 수가 약 천 여명이었는데 사용한 예산에 비해서는 관객 참여가 저조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고궁가죽음악회에 대한 홍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잘된 반면 현장 홍보는 미흡한 편이었다. 경복궁 입구에서 민속박물관 방면 주차장이나 경복궁역 지하철 쪽에서는 쉼내각사터에서 열리는 본 행사의 안내 표지를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경복궁 매표소 직원과 안내소 직원 또한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연 공간에 관해서는 공연장의 고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행사는 예술성을 추구하는 전문 예술 공연이거나 예술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국민 위안 공연의 성격이 짙어보였는데, 이는 일정부분 임시적인 공연무대와 무대 장치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때문에 공연 무대 시설을 향상시키고 고정화 하며 또한 야외 공연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조명과 음향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궁가죽음악회는 경복궁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맞는 품위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우리 문화를 경험, 학습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하고, 출연자들의 인지도를 넘어

서 보다 알찬 아이템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악, 무용 외의 다양한 장르의 수용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질 높은 관객서비스를 위해 공연장에서 지정된 안내자뿐만 아니라 경북 구역 직원과 고궁 주차요원, 고궁안내소 매표소의 종사원까지 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 □ 사업성과

유치단체가 추구했던 사업의 성과는 각각의 특색 있는 문화 장르와 음악의 교류,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고궁에 대한 인식 변화, 대중의 참여 확대, Charity의 확대 (신인, 유망주에 기회제공)등 이었다. 이러한 의도는 다양한 장르와 음악의 교류 시도, 국악, 클래식,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편성을 통해 대부분 실현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시도는 관객층을 확대하고 신예들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한다는 점은 물론 음악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부 장르의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물론 아직은 인지도 높은 출연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예술적인 완성도 또한 대중성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예술 융합을 시도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무료 음악회의 가장 큰 효과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반 시민 위안 공연과의 차별성이 부족함. 본 행사가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고 경복궁에서 열리는 공연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문화를 보다 더 잘 알릴 수 있는 품위 있는 공연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봄.
-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함. 출연진의 지명도를 감안한다하더라도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총 3억여 만원의 예산이 대부분 대민 위안 잔치의 성격으로 쓰이고 있어 공연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움. 1회 공연에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이상이나, 출연자의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움.
- 매회마다 공연의 내용이 국악에서 뮤지컬로 양악에서 춤으로 변화하는 등 회차간 연관성이 부족하였음. 일회성 공연을 위한 계획이나 백화점식 프로그램 구성을 지양하고 보다 가치 지향적이고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품위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요구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2007 국제 윤이상 음악상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국제 윤이상 음악상
- 기간 : 2007년 9월 15일 ~ 9월 17일
- 장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등
- 주최/주관 : 윤이상 평화재단, 국제윤이상협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9. 15 ~ 9. 16 ) → 서면평가(2007. 11.) → 평가회의(2007.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7.9/10.0	13.0/15.0	5.0/5.0	25.9/30.0
현장평가		32.5/41.0	22.2/29.0	54.7/70.0
평가결과	7.9/10.0	45.5/56.0	27.2/34.0	80.6/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5/7.0
	2.중장기 계획여부	2.4/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2.0/2.0
C.사업성과	1.관객확보율	5.0/5.0
평가결과		25.9/30.0

◦ 현장평가결과(다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8/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3.7/5.0
	3.홍보의 적합성	3.7/5.0
	4.사업충실도	4.9/6.0
	5.진행여건의 안전성	2.3/3.0
	6.심사기준 및 방식의 적절성	6.5/8.0
	7.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의 적절성	3.3/4.0
	8.관객서비스	2.3/3.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1/7.0
	2.해당분야 기여도	4.8/6.0
	3.경연대회 완성도	4.6/6.0
	4.경연자 참여도	5.0/6.0
	5.관객 참여도	2.7/4.0
평가결과		54.7/70.0

## 4. 총평

### □ 사업계획

국제 윤이상 음악상은 국내에 국제 기준에 맞는 이렇다 할 작곡콩쿠르가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된다. 음악 예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작곡 분야의 진흥’이라는 차원에서 국고지원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는 행사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주요한 국제 작곡콩쿠르로서 성장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현재 상황의 개선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될 수 있다.

본 행사가 다른 행사들과 차별화를 이루고 나름의 성과를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에서만이라도 그 존재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의 작곡계 인사들 역시 별로 찾아오지 않았다. 이 정도의 예산규모와 상금이 전제된 콩쿠르 행사라면 음악계 인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어야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작곡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형국이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대회 의의 및 긍정적 의미에서의 유사 행사와의 차별성 부분에서는 그다지 만족스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었으며 차후 보강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논의 및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행사의 중장기 계획의 적절성은 이번에 드러난 과제 및 개선사항에 대한 주최 측의 개선 노력 및 성의에 상당 부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국제 윤이상 음악상’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노력과 발상이 보다 입체적인 차원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겠다.

주최 측이 내세우고 있는 ‘문화 브랜드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개념 정립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2회 대회에서는 보다 알차고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성공 사례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기획 및 진행의 세련도를 높여야 하겠다.

## □ 사업운영

이번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 능력은 그다지 만족스런 수준이 아니었다고 본다. 국제성과 기념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단 외국 음악계 인사들의 참여 및 방문이 확대되어야 하겠으며, 행사 자체가 갖는 국제적인 면모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상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입상작들이 외국에서도 여러 번 연주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다. 본 대회가 국제적인 대회로서 분명한 입지를 갖기 위해서는 입상 작곡가들과 입상작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입상작들이 널리 알려지고 입상 작곡가들의 국제적 입지가 강화된다면 본 대회의 국제적 위상은 그만큼 빨리 구축될 것이다.

이번 대회의 사전 홍보와 행사 진행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본 대회가 제1회 대회라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전반적으로 잘 준비된 프로페셔널한 행사 진행이라는 느낌을 갖기 어려웠다. 행사의 사전홍보가 부족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안내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 행사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연주시간이라든지 입장권에 대한 안내 등을 찾을 수 없었다.

프로그램 책자의 내용도 대체로 빈약했다. 작곡자에 대한 소개는 영문으로만 짧게 되어 있었다. 국문을 포함하여 공연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안내해줄 프로그램 책자 제작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객들의 편리를 위해 각 작품의 연주 소요시간과 휴식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안내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예산상의 제약으로 사무국 인원이 부족해서 준비가 충분치 못했을 수도 있으나, 앞으로 관객을 고려한 세심한 행사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최 측의 행사에 대한 사후 관리 부문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반 음악에

호가들을 위한 사후 서비스 및 환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음반 제작 및 배포, 인터넷을 통한 수상작 감상 등이 사후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다 많은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본 대회와 입상작들을 알리려는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이 역시 행사의 국제성과 기념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다.

## □ 사업성과

이번 ‘국제 윤이상 음악상’은 23개국 91개 작품이라는 국제행사의 면모는 갖추었으나 관객의 참여도와 행사의 완성도 차원에서 볼 때는 높은 만족감과 기대감을 주지는 못했다. 일단 사회적 관심도에 있어서 예상만큼의 기대와 환기성을 낳지 못했으며 그 결과로 경연대회의 관객 참여도가 예상보다 저조했다. 그리고 대회 운영의 묘미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인상이다.

또한 이날 연주된 작품들의 성향과 성격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국제적인 작곡가인 윤이상이라는 브랜드는 좋으나, 지나치게 윤이상이라는 존재만을 강조할 경우 작품들의 경향이 윤이상 풍으로만 흐를 여지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연주자 15명~35명을 위한 소편성 관현악곡들이었는데 이러한 규모의 실내악곡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곡콩쿠르는 많으므로 국내 작곡 분야의 진흥을 위해 보다 큰 규모의 관현악곡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물론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제 윤이상 음악상’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예술인들에 대한 효과 및 대중적 차원에 대한 효과 양측에서 만족스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제 2회 대회에서는 이러한 양면의 차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알찬 준비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국제적인 경연대회에 걸맞은 무대 꾸미기 혹은 무대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대회가 국제적인 대회인 만큼 긍정적 의미의 화려함과 장식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주최 측이 지향하는 것처럼 본 행사가 문화 브랜드 차원으로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보완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느낀다. 예술적 차원과 예술 외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분석하고 보강하여 행사 자체의 내실을 높이고 행사의 문화적인 환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하겠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의 작곡계 인사들과 작곡 전공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주최국 안에서의 관심과 열기가 부족하다면 국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한국의 여러 작곡 단체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행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번 경연대회에서 연주를 맡았던 오케스트라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충분한 역동성을 지닌 연주를 들려주지는 못했음. 따라서 앞으로 본 대회에 참여하는 악단들은 많은 연습량을 확보하여 보다 역동적인 연주를 펼칠 필요가 있음.
- 행사에 대한 홍보가 미흡함. 홍보를 전담하는 인력이 신문, 잡지, 방송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함. 기자간담회 개최를 비롯하여 평소 기자들과의 많은 접촉을 통해 기사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행사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예술고등학교와 음악대학 등의 사이트를 통한 홍보활동도 펼칠 필요가 있음.
- 본 대회가 많은 음악인들과 음악애호가들에게 알려지고 기념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환기 작업이 필요함. 특히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입상작 감상 서비스는 본 대회의 존재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2007국제 윤이상 음악상’의 홈페이지와 ‘윤이상 평화재단’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경연대회의 경우 행사 운영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됨.
- 심사위원 구성이 보다 정교해져야 함. 이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인데 심사위원진이 작곡가 윤이상과 관련된 인사 일변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 물론 첫 대회이기 때문에 또한 ‘국제 윤이상 음악상’이라는 성격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으나 앞으로는 폭넓은 작곡 관련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이번에 수상한 작품들과 본선에 오른 작품들이 한국의 악단들과 외국의 악단들에 의해서 연주되고 환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경연대회의 수상작들이 예술계에서 보다 많이 환기될수록 대회의 권위와 위상은 강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주최 측은 자신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차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때문에 다른 분야들과의 연계가 필요한 실정임. 예를 들어 관광사업과의 연계, 방송 및 음반업체 등과의 연계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음악인과 기획사 측의 역량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야함.
- 예술 인재들과 일반 음악애호가들을 포용하기 위한 전략들을 이원화하고 이의 실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 현재로서는 양자 구분 및 그에 따른 전략 수립이 모호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제4회 대관령국제음악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4회 대관령국제음악제
- 기간 : 2007년 8월 3일 ~ 8월 26일
- 장소 : 대관령 정상(용평) 및 도내 시·군
- 주최/주관 : 강원도(대관령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 KBS한국방송(KBS춘천방송총국)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5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8. 3 ~ 8. 27) → 서면평가(2007. 10.) → 평가회의(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9/10.0	14.0/15.0	5.0/5.0	27.9/30.0
현장평가		34.2/40.0	26.4/30.0	60.6/70.0
평가결과	8.9/10.0	48.2/55.0	31.4/35.0	88.5/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2/7.0
	2.중장기 계획의 적합성	2.7/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5.0/5.0
평가결과		27.9/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0/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0/5.0
	3.홍보의 적합성	4.4/5.0
	4.사업충실도	5.4/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2.9/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6/6.0
	7.관객 서비스	5.9/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1/7.0
	2.사회적 파급효과	5.2/6.0
	3.예술교류 기여도	4.3/5.0
	4.예술적 완성도	5.4/6.0
	5.관객 참여도	5.4/6.0
평가결과		60.6/70.0

## 4. 총평

### □ 사업계획

2007년도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지역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대표 악단이 행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악적 문화기반을 갖고 있는 강원도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고, 강원도민의 관심

과 참여를 진작하기에 좋은 기획이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대관령의 상징성을 살린 강원도만의 독특한 자연·문화·관광이 접목된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 정착” 및 “한국문화의 전통적 근원지로서의 강원문화 이미지 정립”에 대해서는 행사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음악제의 가시적인 정착과 성숙을 위한 음악제 인프라 건립 세부 내용에는 주공연장 뮤직 텐트 및 소 공연장 건립을 통한 인프라 확충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확보계획이 설정되지 않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 또한 사용예산 대비 수익이 미미한 현 시점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또 다시 국가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다.

세계적인 첼로의 거장이며 음악교육가인 “알도 파리소”의 이름을 내 건 국제 콩쿠르가 신설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콩쿠르와 음악학교가 무리 없이 진행되어 국제적인 인재들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알찬 결실을 보였고, 이것은 사업 계획과 실천 간의 괴리를 좁히는 한 요소였다고 생각한다.

## □ 사업운영

예년에 비해 방대해진 예산규모는 조직을 확장 개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인한 다양한 기획들이 실현된 것은 긍정적이다. 콩쿠르를 필두로 클래스와 연주회를 밀도 있게 개최하고, 후반부에는 천천히 클로징으로 가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기획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산 대비 국내외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을 유치해 국제 음악제로서의 위상을 손색없이 갖추었다고 본다.

차별성 및 독창성의 측면에서는 적정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면에서는 본 음악제만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다소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밀도 있고 예술적으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동시대 음악들이 위촉되고 연주되는 사례는 매우 참신하고 고무적인 기획이었다.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점은 한국창작곡의 위촉이 강석희의 “평창의 사계” 단 한곡이었으며 그나마도 이가 국내에서는 연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언론 홍보는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유사 행사들에 비해 언론 노출 빈도가 높았으나, 그에 반해 사회적인 주목과 관심은 끌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소수의 몇몇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 행사라는 의견이 있었다.

예산의 경우 23억 원을 사용하고 음악학교 참가비 수익 외에 공연 수익이 약 7천만 원에 그친 점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수십억을 투자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수익을 얻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운영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뉴욕사무실 유지에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용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 절감 및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공연 장소에 있어서는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용평 리조트의 입지적 조건은 좋으나 온전한 음악회를 위한 시설은 아니었으며 다른 공연장들 역시 열악한 환경에

쳐해있어, 공연장의 인프라는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운영 면에서 본다면,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것이 오히려 신속히 대처해야 할 상황들에 융통성 없는 불편한 원칙으로 적용된 경우도 있었다고 본다. 전문공연장에 비하면 스태프나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는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자체 평가서에 의하면 용평리조트 이외의 강원도 지역의 공연장에서의 공연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 지지 못한 점들이 지적 되었는데, 이 축제가 계속 대관령뿐만 아니라 강원지역 전체를 기반으로 그 곳에 뿌리내리려면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 □ 사업성과

탄탄한 예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예술 감독의 공으로 돌려야 할 것 같다. 국내의 많은 공연장이나 축제들이 예술 감독제를 실질적으로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데에 반해, 올해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예술감독제를 통해 행사 완성도를 높였다고 본다. 실내악, 성악, 교향악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연주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며 위촉 작품제를 통해 새로운 음악이 생산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이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김남윤, 백주영, 정명화, 김영호 등 국내 주요 음악대학의 교수진의 참가로 그 동안 지적되어 온 해외 음악가 위주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국제 콩쿠르와 음악학교의 운영은 우리나라 음악계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본다. 음악학교는 젊은 음악도들로 하여금 미래를 향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케 하고 우수한 국내외 학생들이 참가해 성장의 발판과 소통의 장을 열어 준다는 측면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악학교의 참가비가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최 측에서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오케스트라 구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음악학교가 주로 현악기, 특히 바이올린 위주로 학생층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다. 부대행사로 열린 미술 작품 전시도 조금은 무성의하게 치러진 것 같아서 좀 더 밀도 있게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도내 단체·예술인 950명이 참가하였고 각종 지원행사가 26건 개최되는 등 올해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매우 풍성하였다. 그러나 일부 마스터 클래스는 일반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는 않았으며, 자체 보고서의 관객 집계와 평가위원의 현장평가를 통한 집계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각 공연장 수용능력을 초과할 정도의 관객이 운집하는 등 관객동원에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본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원도에 소재한 휴양지에서 야외 음악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더 많은 관객의 확보를 위해 음악회의 라디오중계 뿐만 아니라 공중파 및 케이블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음악제 관련 콘텐츠 제작보급이 필요함.
- 국고, 도비 의존율이 높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전망이 부재함. 따라서 체계적인 연주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수입의 극대화과 기업 협찬의 증대가 필요하며, 지금까지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예산의 절감이 요청됨.
- 대규모의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참가비가 여전히 높다고 생각됨.
- 한국 창작곡 위촉 비율이 낮았음.
- 매끄러운 행사 진행을 위해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교통편의 및 관객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이 필요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2007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대구국제오페라축제
- 기간 : 2007년 9월 1일 ~ 10월 20일
- 장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수성아트피아, 봉산문화회관, 대구문예회관
- 주최/주관 : 대구광역시(대구오페라하우스)/사)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4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9. 1 ~ 10. 20) → 서면평가(2007. 11.) → 평가회의 (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2/10.0	13.0/15.0	4.0/5.0	25.2/30.0
현장평가		33.9/40.0	25.6/30.0	59.5/70.0
평가결과	8.2/10.0	46.9/55.0	29.6/35.0	84.7/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7/7.0
	2.중장기 계획여부	2.5/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4.0/5.0
평가결과		25.2/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9/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1/5.0
	3.홍보의 적합성	4.4/5.0
	4.사업충실도	5.1/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6/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4.8/6.0
	7.관객 서비스	6.0/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1/7.0
	2.사회적 파급효과	5.0/6.0
	3.예술교류 기여도	4.0/5.0
	4.예술적 완성도	5.1/6.0
	5.관객 참여도	5.4/6.0
평가결과		59.5/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올 해로 다섯 번째 해를 맞이하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국고, 복권기금, 시비 등의 공적기금과 기업 협찬으로 오페라 장르를 책임지고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각계가 동참하는 펀드조성, 대구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국내외 오페라 관련 예술가들의 관심과 열정이 이 축제를 5년 연속 안

정적으로 개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치러지는 이 행사는 국민의 문화 예술 향수권 확대와 해당 장르에의 예술적 기여라는 국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방대한 예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오페라 축제가 새로운 위촉 작품을 내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 창작오페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과정임을 감안 할 때 새로운 음악극을 위한 작가와 작곡가 그리고 연출가를 위한 워크숍이나 매칭사업 등 단순한 공연 이외의 오페라 인프라를 든든하게 하는 참신한 기획들도 생겨나야 할 것이다.

## □ 사업운영

올해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총예산 14억 3천만 원이었다. 총 14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이중 그랜드오페라에 편중적으로 예산이 쓰였다는 점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은 전체 공연에서 오페라 이외의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명훈의 개막연주, 트래디션 오브 아시아, 인형극 도나우아가씨, 열린 오페라 음악회, 로시니 키드와 바흐에의 헌정 등의 행사는 축제의 공연일수를 늘려주는 하지만 오페라 축제 전체 프로그램을 볼 때 비 오페라 공연의 수나 공연 빈도수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올해의 사업 운영은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더불어 새로 개관한 대구의 기타 공연장들의 가세에 힘입어 장소의 다양성을 획득하였다. 또한 장르의 다양성이 돋보였고, 많은 공연 단체의 참여로 양적으로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국제오페라축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랜드 오페라의 공연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외국 오페라단의 참가가 단 2건이었던 점, 외국 단체 중 그랜드 오페라는 1건에 불과했다는 점은 아직도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홍보부분의 경우, 자체 평가에서는 축제기간이 두 달로 긴 편이라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오히려 긴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을 고정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대구 바깥에서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구시의 홈페이지 및 기타 관련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축제 홍보협조는 예년보다 원활한 편이었고 기타 기업체의 후원 또한 발전적이었다. 공연 전에 이루어진 프리 콘서트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쉽게 공연장에 올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호응도가 높았다.

관객 서비스는 프리 콘서트나 좌석안내 등에서 훌륭했으나, 대구시내에서 공연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아울러 공연장에서 티켓팅하는 인력과 행사 안내 인력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여전히 대구 이외 지역의 관객들은 공연을 보고 그날 대구를 떠나는 차편의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과 숙박 프로그램, 전세 차량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 사업성과

국제간 예술 교류에 있어서는 <나비부인>의 경우가 돋보였다. 한국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이태리 루카 극장, 일본 동경 오페라 프로덕션이 합작하였다는 점에서 국제 오페라 축제가 지향하는 국제간 문화교류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나 공연 준비 과정의 실질적 협력 관계 등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국적 합작 시스템이 정착되었는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완성도에 있어서는 형태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 오페라 극장의 <오텔로>가 돋보였다. 그랜드 오페라 급으로는 유일하게 이루어진 외국 단체 공연이었으며 또한 무대와 의상 등을 모두 외국에서 가져오고 연출 및 지휘, 출연진 등이 모두 외국인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실제 공연은 연출력이나 무대장치, 노래연기 등에 있어서 기대에 다소 못 미쳤다. 반면 메인 오페라는 아니었지만 정통 마리오네트 공연인 오스트리아 쾰른 궁정 인형극장의 <도나우 아가씨>는 높은 공연 수준으로 관객 호응이 좋았다. 국내 단체 중 국립 오페라의 <라 트라비아타>는 서울 공연에서도 호평을 받은 바 있는 공연으로, 진부한 레퍼토리를 신선하게 재포장하여 내어 놓음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메인 오페라보다 작고 다양한 공연장에서 펼쳐진 ‘소오페라’의 경우 몇몇 공연은 공연 장소들이 주는 각기 다른 분위기와 공연 여건, 연출력, 출연진의 수준, 홍보 면에서 문제점을 보였다. <결혼 그 두 가지 이야기>는 메시나 홀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공연을 위해 적합한 장소였는지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의견이 많았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레퍼토리나 장소, 공연의 외형 및 질적 수준, 연출력, 출연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길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 내용물은 부실한 축제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객 참여도는 어떤 해보다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 공연 관람자수가 약 2만 1천명으로 이중 유료 관람객의 수가 1만 9천여 명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관객 유치 및 유료 관객 유치는 이번 행사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였다. 높은 단체 관람 비율은 유관 기관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메인 오페라의 비중을 더 높여 프로그램간의 전체적인 연관성을 ‘축제’ 보다는 ‘오페라’에 더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번에 이루어진 부대행사나 사전 콘서트 등은 장르의 다양성과 행사의 축제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일조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오페라의 비중을 약화시켰음.
- 국내 민간 오페라의 참여를 보다 활발히 유도해야 함. 연간 이루어지는 기존의 민간 오페라 공연 중 경합의 형식으로 몇 작품을 선정하여 대구 오페라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 예년의 평가 내용에 대한 개선책을 보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해야 함. 가령, 대구 국제오페라축제에 다녀가는 대구 외부 지역의 관객들을 위한 교통편의를 개

선함에 있어 공연 시간을 앞당긴다든지 항공 및 철도 전용 편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축제를 위해 대구 내의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국제오페라축제의 품격에 맞는 장소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무조건 장소를 다양하게 하는 것 보다는 몇 개의 제한된 장소라도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2007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 기간 : 2007년 10월 23일 ~ 10월 26일
- 장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주최 : (사)한국음악협회, 예술의전당
- 주관 :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집행위원회 사무국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4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10. 23 ~ 10.26 ) → 서면평가(2007. 11.) →  
평가회의 (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2/10.0	11.0/15.0	3.0/5.0	22.2/30.0
현장평가		33.9/40.0	23.9/30.0	57.8/70.0
평가결과	8.2/10.0	44.9/55.0	26.9/35.0	80.0/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7/7.0
	2.중장기 계획여부	2.5/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0.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3.0/5.0
평가결과		22.2/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8/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4/5.0
	3.홍보의 적합성	3.9/5.0
	4.사업충실도	5.0/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6/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1/6.0
	7.관객 서비스	6.1/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6/7.0
	2.사회적 파급효과	4.5/6.0
	3.예술교류 기여도	3.9/5.0
	4.예술적 완성도	5.1/6.0
	5.관객 참여도	4.8/6.0
평가결과		57.8/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표는 일반적인 기획의도, 즉 연주자 중심의 보통 행사 수준으로 밝혀져 있다. 이처럼 사업 목적성에 참신함이 없고, 단지 협회사업의 일환으로 본 음악제를 꾸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유서 깊은 이 행사가 시작되었을 당시와 현재의 음악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인 목표 역시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는 행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주최 측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연주자들의 연령을 좀 더 낮춰 새로운 음악가들의 무대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행사 내용을 보면 진부한 기획이라 판단되며 여타 유사 행사와의 차별성 역시 낮다.

## □ 사업운영

전체예산은 4억 여 원으로 이 중 사무국인건비 관련 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본 행사의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예산 대비 프로그램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홍보의 경우에는 음악 잡지상의 홍보를 위해 7백 여 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전국단위의 규모 있는 행사라면 신문은 물론 잡지에서 앞 다투어 기사화하는 것이 관례임을 생각해 볼 때, 본 행사가 홍보를 위한 큰 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총 공연수입을 봤을 때에도, 이는 전체 예산 4억여원의 예산에서 얻은 수익으로는 매우 미비했다.

조직의 경우, 음악제를 이끌어가는 조직은 우리음악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들 다수를 망라하고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이 정작 이 행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문과 기여를 했는지 의문이다. 프로그램의 경우는 여타의 음악회 프로그램과 크게 차별되지 않았다. 행사홍보의 경우, 금년 음악제가 예년보다는 홍보를 더 하긴 했지만 전체를 볼 때, 그것도 국지 홍보에 그친 감이 있다. 또한 공연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경우 매우 전문적이지 못했다.

## □ 사업성과

관객 부분은 지역과 출연자에 따라 관객의 질과 양이 결정되었다고 본다. 개막공연은 약 1천여 명의 관객 밖에 없었다. 다음날 존 오코너와 국내연주자들의 공연에는 전날에 비해 많은 관람객이 모였는데 이는 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의 관중동원 결과로 관객 동원에서는 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행사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국제음악제는 음악제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사는 일반적인 그리고 늘 보아오던 외국인 초청 공연 혹은 조인트 공연의 형태였다. 프로그램·공연의 형식·공연의 내용 면에서도 신선함이 없었다.

대한민국국제음악제는 음악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여타 유사 행사들과의 차별성 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의 목적이 참신하지 못하며 모호함. 또한 행사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역시 부재함.
- 사업주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목표, 기획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판단됨.
- 예산 대비 프로그램 내용이 부실하며, 참신함이 떨어짐. 예술 영재 무대의 경우에도 여타 행사와의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행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관객 참여도가 낮았음. 관객 동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더불어 공연장 스태프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친절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2007 부산국제합창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부산국제합창제
- 기간 : 2007년 10월 31일 ~ 11월 3일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 주최 : 한국합창조직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10. 31 ~ 11. 3) → 서면평가(2007. 11.) → 평가회의(2007.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8/10.0	13.0/15.0	5.0/5.0	26.8/30.0
현장평가		34.5/41.0	26.0/29.0	60.5/70.0
평가결과	8.8/10.0	47.5/56.0	31.0/34.0	87.3/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2/7.0
	2.중장기 계획여부	2.6/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5.0/5.0
평가결과		26.8/30.0

◦ 현장평가결과 (다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6/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3/5.0
	3.홍보의 적합성	4.0/5.0
	4.사업충실도	4.9/6.0
	5.진행여건의 안전성	2.5/3.0
	6.심사기준 및 방식의 적절성	7.0/8.0
	7.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의 적절성	3.5/4.0
	8.관객서비스	2.7/3.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3/7.0
	2.해당분야 기여도	5.3/6.0
	3.경연대회 완성도	5.4/6.0
	4.경연자 참여도	5.4/6.0
	5.관객 참여도	3.6/4.0
평가결과		60.5/70.0

## 4. 총평

### □ 사업계획

당장의 성과를 놓고 본 행사가 국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해에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주최 측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었다. 국내에서 유사행사라면 탐라전국합창축제가 있지만 일단 규모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성격도 조금은 다르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해외에 유사한 대회가 많아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급선무인 듯싶고 타 대회와의 차별성을 구축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탐라합창제와 부산국제합창제 모두에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 대회의 차별성은 향후 국고 지원의 당위성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임이 틀림없고 그렇다면 이것 역시 두 대회의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며 비전의 제시와 아울러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흔히 국제적인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들이 내세우는 공통적인 목표보다는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목적을 표방함이 마땅하며 그 목적을 향한 의지와 성과를 가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내부의 잣대와 체계를 구축함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부산국제합창제의 사업계획은 현 단계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모름지기 새로운 사업계획은 국내외 유사 대회와의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 □ 사업운영

부산국제합창제는 본 행사 개최 이전 부산에서 유치했던 월드콰이어게임의 경험을 토대로 그 대회의 틀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행사인 만큼 외형적인 골격과 틀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위원의 구성이나 심사기준은 무난한 편이고 조직의 외형적인 구성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 문제는 구성원 각각의 전문성과 자질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물론 충분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비전을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그들을 통해 비전과 성과를 널리 확산시켜 전파하는 것이야 말로 국고가 지원되는 국제규모 행사들의 공통적인 사명이 아닌가 싶다. 그런 면에서 구성원의 자질만큼이나 아쉬운 것이 홍보이고 또한 관객에 대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든다.

홍보와 서비스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의 홍보와 관객 서비스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은 현장에 투입된 요원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열의가 남달랐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의 정성과 노력이 제대로 빛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배치와 역할 분담, 교육이 총체적이고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마다 당해연도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여 마무리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궁극적인 행사의 목표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부산국제합창제의 문제는 외형적인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내용에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은 구성원 각자의 능력과 역할에 달려 있는 만큼 이 점에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 □ 사업성과

관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참여한 관객의 관심과 호응도는 높았다. 경연대회에 참

여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임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 그것을 따지기 보다는 참가한 경연자의 수와 그 수준을 거론하는 것이 사업성과를 가늠하는 데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참가팀 전체 숫자는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결정되었다고 이해하더라도 그 질적인 면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 참가팀들의 면면이 미흡했다는 점과, 참가자들의 상호 교류를 위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같은 외형적 장치들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 것은 전년도에 지적된 부분을 당장에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보였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 아마추어 합창활동이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과 같은 문화 선진국 어디를 가더라도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아마추어 합창단과 밴드가 있어 이들이 곧 공동체의 문화적 소양과 역량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실정은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본 행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중장기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못했음.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유사한 국내외 행사들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함. 한정된 예산에서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소수 정예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인원이 줄어든 만큼 충분한 보수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업무를 부과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더불어 부족한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충당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정확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가팀의 수준과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함. 합창과 관련한 국내외 협회 등의 조직이나 개별 전문가와의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모색하여 참가팀들을 섭외, 유치해야 함.
- 대회의 성과가 아마추어 합창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행사 기간 중 해외 합창지도자들을 대거 초청하여 공개 특강이나 공개 워크숍을 진행하고 참가팀들의 공연을 늘려 각 급 학교나 직장, 혹은 지역사회를 방문하는 음악회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2007 안익태 기념음악회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안익태 기념음악회
- 기간 : 2007년 11월 10일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재)안익태 기념재단
- 주관 : 서울시립교향악단, 킬쳐비즈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11. 10) → 서면평가(2007. 11.) → 평가회의(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3/10.0	10.0/15.0	5.0/5.0	23.3/30.0
현장평가		33.8/40.0	25.1/30.0	58.9/70.0
평가결과	8.3/10.0	43.8/55.0	30.1/35.0	82.2/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0/7.0
	2.중장기 계획여부	2.3/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4.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0.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5.0/5.0
평가결과		23.3/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7/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3/5.0
	3.홍보의 적합성	4.2/5.0
	4.사업충실도	5.1/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3/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2/6.0
	7.관객 서비스	6.0/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1/7.0
	2.사회적 파급효과	4.6/6.0
	3.예술교류 기여도	4.2/5.0
	4.예술적 완성도	5.2/6.0
	5.관객 참여도	5.0/6.0
평가결과		58.9/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안익태기념음악회는 우리나라 서양음악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익태 선생의 음악세계와 그의 음악교육에 대한 이념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음악문화의 기반을 다진다는 점에 있어서 국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익태 선생의 작품 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안익태 선생의 작품 연주 시, 국내 아티스트가 아닌 해외 아티스트의 초청 연주를 통해 음악계의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해외 음악계를 대상으로 한 ‘안익태 음악 알리기’ 등의 기획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

## □ 사업운영

안익태기념음악회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자문·후원 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음악사업 운영을 위한 실무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음악사업 전담 실무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행사목적에 걸맞은 유기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며, 행사 홍보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국민적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본 행사가 안익태 선생의 음악세계를 조명하는 뜻 깊은 행사인 점을 고려할 때 연주를 통한 음악적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공연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석 규모만을 고려하여 클래식 음악 전용 공연장이 아닌 다목적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회를 개최한 점은 안익태 선생의 음악세계 조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레퍼토리 면에 있어서도 안익태 선생의 작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작곡가와 연계하여 안익태 선생의 작품을 활용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등 안익태 선생의 작품세계를 계승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레퍼토리의 개발이 요구된다.

## □ 사업성과

2,000명 정도의 많은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안익태 선생 음악에 대한 재조명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나, 중·고등학생 등 동원성 관객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쉽다. 또한 본 행사를 통해 애국가 작곡자인 안익태 선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 되고 있으나, 홍보현황 등을 볼 때 일반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국내 최정상급의 연주단체를 활용하여 예술적 완성도를 높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해외 음악가의 참여 등을 살펴볼 때 예술교류 기여도에 있어 다소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익태 선생이 생전에 남긴 작품 수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상술했듯이 국내외 작곡가와 연계하여 안익태 선생 작품을 활용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등 안익태 선생의 작품세계를 계승할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듯함.

또한 본 행사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음악사업 전담 실무조직의 미비로 인해 행사의 체계적인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봄. 본 행사의 성격상 행사 후 더욱 더 적극적인 홍보물 배포 등 애국가의 작곡자 ‘안익태 알리기’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국내의 주요 음악행사 등에 안익태 작품 연주를 권하기 위해, 안익태 선생 작품집을 발간하여 전국의 연주단체에 배포하는 등 국내 음악계와 함께 안익태 선생에 대한 재조명 기회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2007 윤이상 페스티벌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윤이상 페스티벌
- 기간 : 2007년 9월 16일 ~ 11월 3일
- 장소 : 예술의전당 음악당 등
- 주최/주관 : 윤이상 평화재단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9. 16 ~ 11. 3 ) → 서면평가(2007. 11.) →  
평가회의 (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7/10.0	11.0/15.0	5.0/5.0	24.7/30.0
현장평가		35.4/40.0	26.6/30.0	62.0/70.0
평가결과	8.7/10.0	46.4/55.0	31.6/35.0	86.7/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2/7.0
	2.중장기 계획여부	2.5/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4.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1.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2.0/2.0
C.사업성과	1.관객확보율	5.0/5.0
평가결과		24.7/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1/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5/5.0
	3.홍보의 적합성	4.4/5.0
	4.사업충실도	5.2/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7/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6/6.0
	7.관객 서비스	5.9/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1/7.0
	2.사회적 파급효과	5.6/6.0
	3.예술교류 기여도	4.5/5.0
	4.예술적 완성도	5.4/6.0
	5.관객 참여도	5.0/6.0
평가결과		62.0/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윤이상 탄생 90주년을 맞이하여 단일 한국 작곡가를 기념하는 국내 최초, 최대의 페스티벌이 열렸다는 것이 금번 행사의 가장 큰 수확일 것이다. 여건상 자주 연주될 수 없는 큰 규모의 관현악 곡들과, ‘나의 땅 나의 민족’의 국내 초연, 윤이상 초기 작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얻어진 창작 국악곡 발표 등 참신한 기획들이 많았



다. 또한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실내악단이 대거 참여하고, 폐막 음악제에 과감히 신예를 투입하여 젊은 열정으로 참신하게 해석한 성의 있는 연주를 선보이게 하는 등 이제까지의 윤이상 관련 음악회와는 차별화된 기획이었으며 예술적 내실과 외형을 균형 있게 조화시킴으로써 국고지원의 의미를 잘 살린 행사였다.

그러나 탄생 90주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시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달성 가능한 장기적인 세부 목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서에는 전체 행사의 장기적인 비전이 실행 목표들에 제시되어있었는데 그 문구를 보면 “탄생일부터 서거일 까지.....사상 최대 규모로 연주”, “대표적인 연주단체들이 대거참여.....”,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연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주” 등의 내용이 있다. 이러한 수적, 양적 공세에 대한 실행 지침은 아무리 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윤이상의 음악을 왜곡되게 전달할 소지가 있다.

앞으로 윤이상 페스티벌이 국제 윤이상 음악상의 창작곡 배출과 국악창작곡의 연주 부분도 적극 활성화시켜 한국음악계의 재탄생을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 행사의 지속적 성공을 위해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대음악에 관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대행사 프로그램도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 □ 사업운영

운영조직은 매우 효율적으로 짜인 듯하다. 물론 행사의 직접 실행은 외주를 주었다 하더라도 적은 인력으로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한 점은 업무 효율성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예술적인 면과 사업적인 면에서 비교적 균형 있게 구성되었으며 운영사무국 조직도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러 단체가 연관 되어 있는 일부 행사들은 협력체계가 다소 약해보였다. 관객 부분의 경우 행사별로 객석점유율의 편차가 보인 것이 조금 아쉬웠다. 전체 예산대비 사업 규모는 적정했으며, 홍보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시기적절하게 윤이상 기념관 건립 이슈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어 행사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낳은 듯하다. 부산공연의 경우에는 홍보에 대한 호응이 높아 조기 매진되었으며, 예약을 못한 관객들이 그냥 돌아가는 일도 벌어졌다. 공연진행에 있어서는 공연에 따라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자를 두거나 공연 시작 전에 작은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관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엿보였다. 대개 이런 작은 이벤트들이 음악 감상 분위기를 해치기도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오히려 윤이상의 난해한 음악의 이해를 돕는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보인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관현악·실내악·칸타타·솔로곡, 그리고 양악에서 국악까지 매우 다양하게 꾸며졌고, 비교적 연주단체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었다.

## □ 사업성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관객 참여도에 다소 편차가 있었으나, 현대음악 특히 단

일 작곡가의 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음악회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객석 점유율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꾸며져 윤이상 작품을 폭넓게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작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행사였다.

일반적으로 음악 분야 사업은 연주의 완성도가 그 행사의 성패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윤이상 페스티벌은 국내 최고의 연주단체와 협연자, 지휘자 그리고 국제적으로 실력이 인정된 유수의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행사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통영국제음악제 등 윤이상 관련 사업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윤이상 관계 사업 중에서 작곡가와 작품에 가장 총체적이며 진솔하게 접근했다고 보인다. 또한 ‘국제 윤이상 음악상’ 제정은 윤이상 작곡세계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또한 아시아권의 창작계를 아우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정표로서 사후 이 행사의 발전가능성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창작곡악 작곡 발표도 나름대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한 작곡가의 작품을 사후에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이가 연주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작품이 개인의 차원을 떠나 국가와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윤이상 작품이 전파될 수 있는 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된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음악에 비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현대음악의 연주가 이처럼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작고한 작가의 작품을 문화 자산으로 남기려는 그 주변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임. 이러한 노력은 연주, 음반제작, 학술적 연구, 대중적 홍보, 국제무대로의 진출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이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됨.
- 차후 국내 연주단체와의 협력, 세계적인 연주 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 윤이상의 작품을 전파하고, 제2·제3의 윤이상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인 유수의 음악 축제에 초대작으로 채택되고 연주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함.
- 이 행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관객 확보가 요구됨. 특정 공연에는 관객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여타 공연에는 관객이 많지 않았음.
- 그리고 대부분의 공연이 지명도 높은 연주자들로 구성되었지만 이중 몇몇 연주 단체는 지명도에 비해 연주력이 매우 낮은 편이었음. 높은 개런티를 받는 지명도 높은 연주자들로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수준 낮은 연주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함. 특히 연주자의 연주 완성도가 전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제12회 제주국제관악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12회 제주국제관악제
- 기간 : 2007년8월 12일 ~ 8월 20일
- 장소 : 제주해변공연장, 문예회관대극장, 기적의공원특설무대,  
서귀포천자연폭 야외공연장, 성산일출봉야외공연장,  
저지예술인마을야외공연장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 주관 : 제주국제관악제집행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8. 12 ~ 8 . 20) → 서면평가(2007. 11.) →  
평가회의 (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9.1/10.0	13.0/15.0	5.0/5.0	27.1/30.0
현장평가		35.1/40.0	26.2/30.0	61.3/70.0
평가결과	9.1/10.0	48.1/55.0	31.2/35.0	88.4/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3/7.0
	2.중장기 계획여부	2.8/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5.0/5.0
평가결과		27.1/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9/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7/5.0
	3.홍보의 적합성	4.3/5.0
	4.사업충실도	5.4/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6/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2/6.0
	7.관객 서비스	6.0/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3/7.0
	2.사회적 파급효과	5.4/6.0
	3.예술교류 기여도	4.3/5.0
	4.예술적 완성도	5.0/6.0
	5.관객 참여도	5.2/6.0
평가결과		61.3/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일단 제주국제관악제가 국고지원 사업으로서 지니고 있는 소기의 목적은 무난하게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음악을 비롯하여 공연예술의 저변이 수도권을 뛰어넘어 지방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사업에 있어서의 ‘균형개발’ 방식이 요구된다고 본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문화 예술의 ‘거점개발’ 방식을 추구했

던 것이 2000년대 이전까지의 일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발전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풍요로운 문화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균형개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제주국제관악제는 국제행사로서의 의미를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문화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국고지원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유사행사와의 차별성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본 음악제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구성요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획단계에서 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것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주국제음악제의 공연 및 부대요소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화, 연극, 뮤지컬, 무용 등 여타의 공연 문화 장르들과의 새로운 접목을 시도해 보거나, 미술이나 문학 등 비 공연예술 장르들과의 결합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 사업운영

사업운영은 비교적 훌륭했다고 보여 진다. 사전에 수립되었던 계획이 잘 실천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관객서비스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평가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운영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매우 친절했는데 이 점은 행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본 음악제가 국고 지원과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해보았을 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못한 듯하다. 제주국제음악제가 변화하고 보다 진보하는 음악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는 민간에서 후원을 받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 □ 사업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려 기획된 제주국제관악제는 문화예술향수권의 확대와 예술분야 진흥에의 기여 등 목적달성도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서울 및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국내 문화예술의 질적, 양적 현실을 따져보았을 때 본 음악제는 국고지원을 통한 공연 예술문화의 지방 확산이라는 소기의 목적 또한 잘 달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객참여도 역시 좋았다. 공연장에서의 관객 호응도는 매우 높았으며, 공연 콘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예술교류 기여도 부문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제행사라는 잣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참가국가 및 단체가 편중된 경향을 보였으며, 국제음악제로서의 보편성(普遍性)이 부족했다. 본 음악제를 통해 관악에 대한 국가간 예술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여타 음악제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공연 요소의 개발이 필요함.
- 민간 부문의 후원 활성화를 통한 공연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함.
- 예술 교류 확대를 위한 세부 실천사항 마련이 필요함.
- 보다 다양한 국가 및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의 국제적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제7회 탐라전국합창축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7회 탐라전국합창축제
- 기간 : 2007년 7월 18일 ~ 7월 22일
- 장소 :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시 산지천광장, 서귀포 천지연야외공연장
- 주최/주관 : 제주도, 탐라전국합창축제 조직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7. 18 ~ 7.22 ) → 서면평가(2007. 10.)  
→평가회의(2007.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0/10.0	14.0/15.0	5.0/5.0	27.0/30.0
현장평가		32.9/41.0	22.9/29.0	55.8/70.0
평가결과	8.0/10.0	46.9/56.0	27.9/34.0	82.8/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7/7.0
	2.중장기 계획여부	2.3/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확보율	5.0/5.0
평가결과		27.0/30.0

◦ 현장평가결과(다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5/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3.8/5.0
	3.홍보의 적합성	3.4/5.0
	4.사업충실도	4.9/6.0
	5.진행여건의 안전성	2.4/3.0
	6.심사기준 및 방식의 적절성	6.9/8.0
	7.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의 적절성	3.5/4.0
	8.관객서비스	2.5/3.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4/7.0
	2.해당분야 기여도	4.6/6.0
	3.경연대회 완성도	4.8/6.0
	4.경연자 참여도	5.2/6.0
	5.관객 참여도	2.9/4.0
평가결과		55.8/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이번 ‘제7회 탐라전국합창축제’는 경연대회 성격을 갖는 공연은 단 한차례만 실행되었고 대부분이 축제적 성격의 공연들로 채워졌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를 소재로 한 창작음악들을 위촉하고 또한 그런 음악들을 음반으로도 제작하겠다는 의지 그리



고 인터넷상에 감상 공간을 확보하여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 역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행사는 축제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저조한 관객 수, 외부 음악계 인사들의 무관심 그리고 관광객들의 관심 유발 실패 등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주최 측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음악예술을 관광 사업과 접목시켜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사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 라는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본 행사의 예술적 차원과 그 의미만을 인정하고 유지한다면 굳이 이렇게 사회적 관심과 성황을 전제로 한 대규모의 축제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음악 내적인 차원만을 내실 있게 지향하는 창작가곡 발표회나 합창음악 발표회를 따로 구성하여 집중 있게 이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상황은 예술적 측면과 대중적 측면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독특한 언어와 풍습을 주제로 한 창의적인 음악들을 양산하고 보급한다는 주최 측의 취지는 나름대로 참신성과 독창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면에서 본 행사는 다른 성악 음악 행사들과의 차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국고 지원을 받을 만한 취지와 명분은 갖추고는 있으나 제주도의 여러 문화행사 중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차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술했듯이 축제적 차원에서의 보강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 사업운영

이번 ‘제7회 탐라전국합창축제’는 마지막 공연까지 애초에 계획된 대로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획, 운영 면에서 몇 가지 부족한 점들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다. 우선 제주도 관광 자원의 활용이 부족하였고, 일반 직장인들의 관람을 고려하지 않은 공연 시간 설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공연 장소가 제주시의 두 곳을 포함해 모두 세 곳으로만 한정되었고, 그 결과 아름다운 제주도의 운치 있는 분위기를 접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획 차원에서 본 행사는 좀 더 섬세해지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주의 멋과 낭만을 살릴 수 있는 좀 더 입체적이고도 풍성한 기획들이 등장해야 하겠다.

아울러 양식적으로나 규모 상으로나 좀 더 다양한 창작 음악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관현악 반주가 있는 대규모 합창곡이나 뮤지컬 스타일의 합창곡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규모와 분위기의 성악 음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좀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음악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신선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 사업성과

이번 ‘제7회 탐라전국합창축제’는 예술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며, 또한 운영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술 외적인 차원(관광적 측면, 주민 화합 및 축제적 측면 등)들에서는 그다지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공연의 완성도 차원에서만 보자면 나름대로의 결실은 있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번 행사의 관객 참여도가 주최 측이 예상한 것보다 저조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며 또한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본 행사는 제주도라는 지역의 매력을 부각시켜 외부 지역민들과 외국인들의 방문 수를 늘이는 것도 행사의 주요 목표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볼 때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의 관광 및 축제적 차원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행사의 목표와 비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창작 활성화·문화 향수권 확대·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이 중 행사의 우선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큰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미나나 심포지움 같은 자체 토론의 장도 의미가 있으나, 행사 발전을 위해 자문단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봄.
- 행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 입체적이고 폭넓은 홍보, 이벤트 차원에서의 공연 및 행사 유치, 지역 사회의 교수 및 교사들과의 협조 체제 구축, 인터넷을 통한 감상 공간의 확보 등이 요청됨.
- 제주도 외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주 지역 이외의 음악인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공서와 방송국, 관광업체 등과의 연계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행사의 수준 및 이미지를 보다 입체적인 차원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의 공연 내용들은 비슷비슷한 수준과 분위기의 프로그램들이 계속되는 양상이 강함. 이러한 평면적 인상으로부터 이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를 위해 국내외 정상급 합창단의 참여를 유도해 보는 것도 효과가 있을 듯함.
- 본 행사에서 발표되는 창작음악들의 양식과 규모를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 오케스트라 반주를 사용하는 대규모 합창곡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음악, 뮤지컬 분위기의 대중적 합창곡 등 다양한 양식과 매체의 음악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제주도가 가진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현재의 공연들은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분위기를 살리는데 그다지 고무적이지 못함. 음악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적인 개념이 현재보다 더 많이 부각되어야 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제10회 한민족창작음악축전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10회 한민족창작음악축전
- 기간 : 2007년 11월 21일
- 장소 : 성남아트센터
- 주최/주관 : (사)한국음악협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11. 21) → 서면평가(2007. 11.) →  
평가회의(2007. 12.)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7.4/10.0	12.0/15.0	3.0/5.0	22.4/30.0
현장평가		31.9/41.0	21.8/29.0	53.7/70.0
평가결과	7.4/10.0	43.9/56.0	24.8/34.0	76.1/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3/7.0
	2.중장기 계획여부	2.1/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4.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노력	0.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3.0/5.0
평가결과		22.4/30.0

◦ 현장평가결과(다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7/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3.8/5.0
	3.홍보의 적합성	3.5/5.0
	4.사업총실도	4.3/6.0
	5.진행여건의 안전성	2.5/3.0
	6.심사기준 및 방식의 적절성	6.4/8.0
	7.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의 적절성	3.3/4.0
	8.관객서비스	2.4/3.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1/7.0
	2.해당분야 기여도	4.8/6.0
	3.경연대회 완성도	5.0/6.0
	4.경연자 참여도	4.4/6.0
	5.관객 참여도	2.5/4.0
평가결과		53.7/70.0

## 4. 총평

### □ 사업계획

한민족창작음악축전은 국내외 한민족 작곡가를 대상으로 2관 편성 이상 관현악곡을 공모하는 작곡콩쿠르로서 창작곡 분야 진흥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행사가 10회에 이르기까지 주로 국내 작곡가들이 입상을 하였으며 해외거주 동포 작곡가들은 참여와 수상이 모두 저조하여 행사 명칭이 갖는 의미와 취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으로는 “한국의 열이 담긴 창작음악을 발굴하여 우리 창작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악단에 알리겠다.”는 사업목적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정된 작품을 세계 악단에 알리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행사가 해외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외에 국내의 기존 작곡콩쿠르들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 또한 지금까지와 같이 해외에서 아주 소수의 동포 작곡가만 참여하고 그나마 상은 대부분 국내거주 작곡가들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행사를 지속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 □ 사업운영

본선연주회는 협연오케스트라, 대기실, 무대상태 등 적절한 환경 속에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단, 프로그램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번 행사 관련 통계자료(몇 개국, 몇 명 등)와 예선을 비롯한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가 없는 등 관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 상에 작곡가, 평론가, 지휘자, 타분야 예술인, 언론인 등으로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심사위원진을 모두 작곡가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작곡가들만으로 심사위원진을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았으며 비전문가에 의한 심사오류를 없앨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한편 지난해에 지적되었던 해외 동포 작곡가들의 참여 활성화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안 되었는데 주최 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해외 작곡가 유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행사의 홍보가 부족하였는데 주최 측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모요강에 대해서만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 행사과정에 대한 안내나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의 매체에서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 □ 사업성과

올해 행사 내용을 보았을 때 “해외 동포와의 문화교류와 창작음악의 활성화”나 “우리 창작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내외 한민족 작곡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육성한다.”는 사업목적은 달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안 되었으나 해외동포 작곡가의 참여가 저조하여 ‘한민족 창작음악축전’이라는 행사 명칭이 무색했다.

본선연주회의 관객 참여도는 매우 저조하였다. 국내 작곡계에서 이 행사에 관심

이 있는지 특히 작곡전공학생들이 이 행사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등 주최 측의 관객유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인다. 또한 관객참여도가 저조했던 데에는 적절치 못한 행사장소(성남)와 행사의 시기도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경연자 참여 및 관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동포 작곡가들 및 작곡전공 학생들을 비롯한 국내 작곡계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인책이 필요하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올해 한민족창작음악축전은 행사 명칭에 걸맞은 행사가 되지 못했음. 그동안 주로 국내 작곡가들이 입상을 하였으며 해외거주 동포 작곡가들은 참여와 수상 면에서 모두 저조하여 행사 명칭이 갖는 의미와 취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임. 10회를 치르고 난 지금 이 행사가 해외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외에 기존 국내 작곡콩쿠르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지금까지와 같이 해외에서 아주 소수의 동포 작곡가만 참여한다면 이 행사를 지속해야 할 명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 행사 취지와는 달리 해외동포 작곡가들의 참여가 저조했음. 2007년 행사의 경우 중국동포 작곡가의 작품이 본선 진출작 4편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나 입상은 하지 못함. 해외동포 작곡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해외동포 작곡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해외주재 대사관 문화원 등 재외공관 협조유치, 그리고 해외동포 작곡가에게 일정 비율 본선 진출 기회 부여 또는 본상이외에 본선 진출작에 대해 장려상이나 격려상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창작곡 발표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객 수가 매우 적었음. 따라서 관객확대와 행사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행사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행사안내를 충실히 하고, 전국의 예고나 음악대학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작곡전공 학생들에게 집중 홍보하며, 신문, 잡지, 방송 등 관련 매체를 통해 기사화 하고, 전국 음대 및 예고의 작곡과 교수 및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작곡전공 학생들의 본선 연주회에 대한 관심과 참관을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본선연주회의 인터넷 중계 및 행사 종료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주 감상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무용분야

## (4개 사업)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제26회 국제현대무용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26회 국제현대무용제
- 기간 : 2007년 6월 1일~ 6월 12일
- 장소 : 아르코 예술극장 대·소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상명대학교 무용과 스튜디오 외
- 주최/주관 : (사) 한국현대무용협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6. 1 ~6. 12) → 서면평가(2007.8.) →  
평가회의(2007.11.)

### 3. 평가결과

####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2/10.0	13.0/15.0	4.0/5.0	25.2/30.0
현장평가		33.3/40.0	24.2/30.0	57.5/70.0
평가결과	8.2/10.0	46.3/55.0	28.2/35.0	82.7/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8/7.0
	2.중장기 계획여부	2.4/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 확보노력	2.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4.0/5.0
평가결과		25.2/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8/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0/5.0
	3.홍보의 적합성	4.3/5.0
	4.사업충실도	4.9/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5/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4.8/6.0
	7.관객 서비스	6.0/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8/7.0
	2.사회적 파급효과	4.6/6.0
	3.예술교류 기여도	4.0/5.0
	4.예술적 완성도	4.6/6.0
	5.관객 참여도	5.2/6.0
평가결과		57.5/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유사행사와의 차별성에서 평가위원 간 의견차가 있었다. 한편에서는 국제현대무용제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행사들이 본 행사를 벤치마킹하였

기 때문에 유사 행사와의 차별성이 약화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본 반면 한편에서는 행사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유사 행사와의 차별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 행사의 경우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등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다. 또한 ‘국제 행사를 통한 국내무용의 세계화’ 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외국에서 개최되는 무용페스티벌에 우리나라 무용단체와 작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파일링한 작업 역시 긍정적인 시도라 판단된다. 또한 작품의 내용을 떠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작품들이 많이 초청되었으며 국내의 명망 있는 무용단 및 유망한 젊은 무용단이 참가하는 등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짜임새가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 □ 사업운영

올해 국제현대무용제는 외국 초청공연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보다는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였고, 개막공연을 비롯하여 국내 공연에 많은 관객이 몰리는 등 높은 객석 점유율과 관객들의 반응이 이를 입증한다.

국제현대무용제는 지난 25년간 세계 무용계의 조류를 보여주고 유행을 주도하는 실험적인 해외무용단을 주로 초청해왔다.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검증된 작품을 초청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험성이 강한 단체의 공연을 선보여 지난해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듯하다. 그러나 ‘참신성’에 몰두한 나머지 지나치게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국내 작품의 경우 신작 발굴에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초청된 무용단들은 뛰어난 단체이기는 하지만 이미 발표했던 작품을 무대에 올려, 평단과 언론의 신선한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했다는 평이다.

부대행사는 일회성 이벤트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신설된 프로그램이 많았다. 또한 올해는 온라인 홍보에 많은 비중을 두는 등 홍보 면에서 지난해에 비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 □ 사업성과

올해 행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관객 동원률을 보였다. 관객참여도의 경우 국내 공연 관객 동원률이 해외공연에 비해 높은 점도 눈에 띈다. 국제공동작업은 매우 높은 객석점유율과 유료관객 동원률을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공동작업과 국내무용콘텐츠 파일링, 영상저작권에 대한 부분 명기 등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행사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작업이라 평가된다. 전년도에 비해 활발한 온라인 홍보 및 지하철 역 홍보활동도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행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개막공연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 아쉽다. 조셉 나주는 날카로운 문제성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해외초청

공연의 경우 조셉 나주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소품 위주였다고 생각된다. 대작이 한 두 편 더 있었으면 양적으로 균형을 이루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제공동작업으로는 한국-프랑스, 한국-일본, 한국-미국 작업이 있었는데 한국-프랑스 작업 ‘기억 세포’는 지난해 국내에 선보였던 작품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내 초청공연의 경우에도 눈에 띄는 신작을 찾기 힘들었다. 루멘판토마임댄스시어터의 ‘전시장 안의 사람들’ 정도가 눈에 띄었는데 평소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어서 아쉬웠다. ‘Waiting’은 좋은 작품이었지만 역시 신작이 아니었으며, 젊은 무용가들의 초청무대인 ‘스파크 플레이스’는 스파크가 날 정도로 눈에 띄는 열정적인 작업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본 행사의 목적은 국내외의 유능한 안무가들을 초청하여 그 기량을 선보이게 하고, 새로운 무대연출로 공연예술의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무용 감상 인구의 확대와 국제문화교류의 장을 넓히는 것임. 그런데 해외 초청 작품 가운데 두 편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고 판단됨.
- 아르코극장과 함께 축제의 주요 공간인 서강대 메리홀은 서로 동떨어져 있어 축제 이미지를 상승시키지 못했음.
- 티켓 수익이 주를 차지하고 워크숍 참가비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루는데, 행사 관련 문화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듯함.
- 예술제의 성공여부는 결국 참가작품의 질에 달려있는 만큼 작품선정에 있어서 좀 더 깊고 넓은 선구안이 요청됨.
- 국내 초청의 경우 점점 폭이 좁아지며 기존의 이름값에 의존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우려됨. 한국 창작 현대무용의 깊이와 폭이 좁다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엄격하게 영역을 확대해 초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스파크 플레이스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되나 이번 공연은 기획의도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됨. 젊은 춤을 확대, 보다 자유롭게 스파크를 일으키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제10회 서울세계무용축제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10회 서울세계무용축제
- 기간 : 2007년10월4일 ~10월27일
- 장소 :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호암아트홀, 두산아트센터 등
- 주최 :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 주관 : 서울세계무용축제 SIDance 2007 조직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10. 4 ~ 10. 27) → 서면평가(2007. 11.) → 평가회의 (2007. 11.)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3/10.0	14.0/15.0	4.0/5.0	26.3/30.0
현장평가		33.9/40.0	24.9/30.0	58.8/70.0
평가결과	8.3/10.0	47.9/55.0	28.9/35.0	85.1/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0/7.0
	2.중장기 계획여부	2.3/3.0
B.사업운영	1.운영 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 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3.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확보율	4.0/5.0
평가결과		26.3/30.0

◦ 현장평가결과 (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1/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2/5.0
	3.홍보의 적합성	4.4/5.0
	4.사업충실도	4.8/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5/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0/6.0
	7.관객 서비스	5.9/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1/7.0
	2.사회적 파급효과	4.8/6.0
	3.예술교류 기여도	4.2/5.0
	4.예술적 완성도	5.0/6.0
	5.관객 참여도	4.8/6.0
평가결과		58.8/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는 해외 무용 조류를 국내에 수용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무용을 선보임으로써 무용의 국제 교류 증진에 힘써왔다. 올해 제10회 행사 역시 아시아 춤의 새로운 발견과 한국 춤의 세계화 도모, 국내외 차세대 무용스타 소개, 공연예술 창작의 흐름과 새로운 조류 소개,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레퍼토리 개

발, 연기공간의 고정관념 탈피에 따른 대중과의 접촉면 확장, 힙합과 현대무용의 경계를 허물며 대중 춤의 예술적 표현 가능성을 시도하는 등 다양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창설 이래 SIDANCE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에 유효했던 기획 경향이 해를 더해갈 수록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가 신설되고 또한 다수의 극장들이 해외작품을 수시로 초청함으로써 서울세계무용축제의 희소성과 독자성이 낮아지고 있는데다가, 해외작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행사를 위한 행사 차원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는 의견이다.

향후 SIDANCE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초청작에의 편중과 안주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행사를 쇄신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춤의 국제 교류 증진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내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사업운영

서울세계무용축제는 행사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조직 규모가 능률적이며,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홍보나 관객서비스 등 진행 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 예산 9억여 원 중 행사비가 약 66%, 홍보비가 약 12%, 경상비가 약 21%를 차지하고, 기업 스폰 유치에도 적극성을 보이는 등 비교적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올해가 SIDANCE 10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구성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 우선 2006년도와 유사한 구성이어서 참신함이 떨어졌다. ‘컴백시덴스’ 외에는 SIDANCE 10주년을 기념할 만한 행사가 특별히 없었으며, 이탈리아 아페르발레토, 영국 러셀말리펀트 무용단, 벨기에 코피히에테리 등 인상적인 해외 초청공연작에 비해 국내 작품작의 비중 및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매년 지적되어 왔던 SPAF와의 시기 및 참가작 중복에 관한 문제와 행사기간의 장기화 및 공연장의 분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 □ 사업성과

전체적으로 참신성이 부족하고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평에도 불구하고 몇몇 해외 단체의 공연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탈리아 아페르발레토무용단, 영국 러셀말리펀트, 벨기에 코피히에테리 무용단의 공연이 그것이다. 이탈리아 아페르발레토무용단은 춤적 조형미와 발랄함을 기조로 매우 정제된 춤을 보여주었고, 영국 러셀말리펀트는 최근 무용계의 화두인 영상과 춤의 결합과 함께 수준 높은 춤을 선보였으며, 벨기에 코피히에테리무용단의 ‘숲 속으로’는 동화 같은 소재에 성인의 시선이 더해진 작품으로 성숙한 동화적인 춤을 가족이 즐길 수 있었다. 그 외에 해외

작들의 완성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여, 무용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관객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그에 비해 국내 작들은 소품 수준에 머물렀고 서울세계무용축제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내 작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너리즘의 경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우리 춤 빛깔 찾기’ 처럼 전년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프로그램이 계속 포함되어 있는 점,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힙합의 진화’는 힙합과 무대 춤의 조합이 부족했던 점, 도시의 춤적 활성화를 위해 시도된 ‘춤추는 도시’가 일반 관객들의 기호를 읽지 못해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향후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SIDANCE의 보다 세밀한 논의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년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미흡함.
- SPAF와의 시기 및 참가작에서 중복되는 문제점이 올해에도 제기되었음.
- SIDANCE의 브랜드 이미지가 국내외적으로 높으므로 그 브랜드 가치를 살리는 방향에서 유사 행사와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행사기간의 장기화와 공연장의 분산, 백화점식 프로그램 구성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택과 집종의 모를 발휘할 필요가 있음.
- 춤의 국제 교류 증진에 부합할 만한 수준 높은 국내 작 발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의 경우 관객들의 기호를 리서치하는 등 관객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세밀한 노력이 요청됨.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제4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4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 기간 : 2007년 8월 27일 ~ 9월 2일
- 장소 :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 주최 : 서울국제문화교류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5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8. 28 ~ 9. 1) → 서면평가(2007. 10.) → 평가회의(2007.11.)

### 3. 평가결과

####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7.8/10.0	13.0/15.0	4.0/5.0	24.8/30.0
현장평가		33.0/41.0	22.4/29.0	55.4/70.0
평가결과	7.8/10.0	46.0/56.0	26.4/34.0	80.2/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5.6/7.0
	2.중장기 계획여부	2.2/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1.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2.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4.0/5.0
평가결과		24.8/30.0

◦ 현장평가결과(다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5.5/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0/5.0
	3.홍보의 적합성	3.9/5.0
	4.사업충실도	4.7/6.0
	5.진행여건의 안전성	2.6/3.0
	6.심사기준 및 방식의 적절성	6.4/8.0
	7.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의 적절성	3.3/4.0
	8.관객서비스	2.6/3.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4/7.0
	2.해당분야 기여도	4.8/6.0
	3.경연대회 완성도	5.0/6.0
	4.경연자 참여도	4.4/6.0
	5.관객 참여도	2.8/4.0
평가결과		55.4/70.0

## 4. 총평

### □ 사업계획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국내에서는 드문 국제 무용 대회로서 무용의 국제 교류와 국제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한국이 주체이고 한국의 무용 역량을 해외에 내보일 국제적 무용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행사의 존재목적이 인정된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해외 무용 인사들과 해외 참가자들에게 우리의 위상을 알리는 효과

가 있다. 따라서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중장기 계획의 적절성 및 해외 유사 행사와의 차별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아 행사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국고를 지원받아 시상하는 행사이다. 여러 나라 무용인들이 경연하는 대회에서 상금 시상 장치는 대회의 수준을 위해 순기능이 작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금 시상 제도가 국고로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 경연대회는 그 대회와 국가 이미지 면에서 독지가들의 열의와 민간 기금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전체 예산에서 국고 지원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발레·컨템포러리 무용·민족무용 경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족무용을 국제행사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시도는 일부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문 가운데 그랑 프리를 선정하는 방식은 장르 간 넘나들기를 시도하는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 장르를 한 자리에 모아야 할 이유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그랑프리 선정하는 방식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및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이에 대한 대책은 2007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주최 측의 자체 홈페이지 등 공식 통로에서도 알려지지 않아 세부적인 중장기 계획을 알 수 없었다.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취지 및 목적 부분은 구체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진단이 어려웠으며, 타 유사행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차별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없다.

## □ 사업운영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집행위원회-자문위원회 조직과 콩쿠르의 실제 진행 사이의 유기적 작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판별하기 어렵고, 조직이 폐쇄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심사위원들은 권위가 인정된 심사위원(발레)이 있는 반면 현대무용의 경우 심사과정이나 위원들의 권위가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민족무용 심사위원이 한국-중국-일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은 이번 민족무용 경연 참가자들이 세 나라에 한정된 사정에서 기인할지라도, 대개 이들 나라의 심사위원들이 다른 나라 참가자들의 춤에 적용했을 심사기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영빈관의 심사위원 만찬 행사는 격식이 있었다. 본선 개막식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한 연주와 영상자료 및 무대 뒷배경은 무난하였지만, 축하 이미지를 찾기가 어려웠으며, 무대 위 단상에서 축사를 발표하는 인사들을 자리로 인도하는 의전요원들의 매너는 세련미가 떨어지고 어설픈 모습 보였다.

예산에서 시상금 외 사례비, 사무기자재, 통신비, 사무비, 진행비, 접대비, 리셉션 등 세부 항목의 중복성과 과다지출이 우려되며 예산 부족으로 홍보비를 삭감하였다는 주최 측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본선 개막식 VIP석을 20만원으로, 학생석을 2만원으로 책정하는 고가 티켓 가격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 □ 사업성과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150여명의 세미파이널 진출자 가운데 34명의 수상자를 가려내었다. 전 부문에서 수상자를 내었고, 전년도에 비해 남성 발레 시니어 부문과 컨템포러리 부문에서 참가자의 수준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자체 심사기준에 충실하고 심사 결과는 투명한 편이었다. 그러나 발레나 민족무용 부문에서 수상자가 한국-중국에 집중된 것은 적정 심사기준에 따른 결과일지라도 국제적 관심을 사기 어렵다고 본다.

민족무용 부문에서 예선 심사 기준으로 제시된 기술성 50%(발레와 컨템포러리무용), 원형보존성 80%(민족무용)는 기준으로서 설득력이 높지 않다. 전통무용의 경우 테크닉이 20%이고 전통성이 80%인데, 예술성을 논외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 콩쿠르 규정에서 예술성과 작품성은 기준으로서 개념이 모호하며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컨템포러리 무용과 민족무용의 주니어 참가자들은 수준이 아직 많이 낮아 이 부문의 경연이 꼭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올해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일반적인 콩쿠르의 성격 외에 본 행사만의 긍정적인 특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참가자는 한국-중국의 비중이 80% 정도여서 국제무용콩쿠르에 대한 일반적 관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재 발굴의 역할을 얼마간 하였겠으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국제적인 대회에 걸맞은 세미나나 간담회가 없었으며, 일부 장학 프로그램 이외에 한국 무용수의 국제적 진출 같은 사업 목표를 뒷받침할 작업도 미미했다고 본다. 국고지원사업으로서 유료 워크숍 이외에 불특정 다수 무용인들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이 없이 경연대회로 시종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내 참가자들과 무용계의 관심이 낮은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조직의 폐쇄성, 조직위원의 구성 방식과 심사 기준에서의 불투명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지금처럼 발레·컨템포러리 무용·민족무용 이 세 장르를 모아 함께 경연을 벌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간의 행사 결과 한국에서 각 나라의 민족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를 열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요청됨.
- 국제무용콩쿠르보다 동북아시아무용콩쿠르의 성격이 더 짙은 현재의 경연 참가자 구성은 전 세계에서 널리 참가자를 모으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행사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개최 및 기획 주체를 다시 공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2007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 기간 : 2007년 7월 13일, 7월 23일 ~ 7월 30일
- 장소 : LG 아트센터, 노원문화예술회관, 김해문화의전당, 아르코 문화예술회관, 한국국제교류재단문화센터
- 주최 :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IPAP)
- 주관 : 2007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사무국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7. 25 ~ 7. 30) → 서면평가(2007. 9.) → 평가회의(2007.11.)

### 3. 평가결과

####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6/10.0	13.0/15.0	5.0/5.0	26.6/30.0
현장평가		35.6/40.0	27.8/30.0	63.4/70.0
평가결과	8.6/10.0	48.6/55.0	32.8/35.0	90.0/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2/7.0
	2.중장기 계획여부	2.4/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3.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5.0/5.0
평가결과		26.6/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0/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3/5.0
	3.홍보의 적합성	4.6/5.0
	4.사업충실도	5.3/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7/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4/6.0
	7.관객 서비스	6.3/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1/7.0
	2.사회적 파급효과	5.8/6.0
	3.예술교류 기여도	4.7/5.0
	4.예술적 완성도	5.4/6.0
	5.관객 참여도	5.8/6.0
평가결과		63.4/70.0

## 4. 총평

### □ 사업계획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무용수들의 활약상을 국내에 소개하고, 또한 그들의 해외 활동을 고무시킨다는 점에서 국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다. 특히 본 행사는 올해로 4회째여서 자칫 식상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올해에는 “강수진과 친구들”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하는 참신함이 돋보였다.

물론 ‘강수진’이라는 인물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함께했던 예술가들이 그 그늘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국의 발레선진국에 비해 스타가 부족하고, 발레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스타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본 사업의 목표설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격년제 실시와 재정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은 예상되나, 본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향후 사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 사업운영

프로그램 구성과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수진’이라는 인물을 지나치게 부각시킨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수진’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기에 수준 높은 무용수들을 소집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클래식 발레와 현대무용의 비율도 적정하였으며, LDP와 이정윤, 김주원을 비롯한 국내 예술가들의 공연 역시 본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열렸던 갈라 공연 중 최고 수준이었다는 평이다. 또한 전체 예산 3억2천만 원 대비 완성도 높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것은 합리적인 예산 운영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소수정예의 사무국 인력과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활용으로 행사 전 홍보부터 행사 후 사후 처리까지 원활한 행사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 □ 사업성과

‘강수진과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행사의 축제성을 높이는 한편 마스크 홍보에 성공함으로써, 전체 예산의 약 7% 밖에 안 되는 적은 홍보비로 93.8%라는 높은 객석 점유율을 나타냈다. 그 중 유료관객의 객석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뮤지컬 시장의 확대에 의해 순수예술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발레 인구를 재결집시키고 발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데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클래식발레·현대무용·한국무용의 배합과 해외파와 국내파 예술가들의 적절한 혼합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또한 예술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이 행사는 대중성·예술성·창의성을 고루 갖추었다고 본다.

또한 갈라 공연으로서는 드물게 메인 공연장이었던 LG아트센터 외에 노원문화예술회관, 김해문화예술의전당에서 순회 공연을 함으로써 사회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려 했던 점 역시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격년제 실시와 재정보호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은 예상되나, 본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향후 사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봄.
- 강수진 개인을 너무 부각시킴에 따라 다른 무용수들이 그늘에 묻힐 위험이 있음.
- 여타 갈라 공연에 비해 공연 횟수가 많은 것은 좋았으나, 무용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LG아트센터 외에 노원문화예술회관, 김해문화예술의전당 등 순회공연 실시는 고무적이나, 보다 전국적인 파급력을 위해서는 서울 외에 다른 대도시 투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행사의 높은 수준과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자선 행사를 1회 배치한다던가 ‘강수진 과 함께하는 꿈나무 프로젝트’ 등 청소년 예술 교육 강화를 위한 공익성 행사를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대중음악분야**

## **(1개 사업)**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2007 대한민국라이브뮤직페스티벌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7 대한민국라이브뮤직페스티벌
- 기간 : 2007년 10월 13일 ~ 10월 14일
- 장소 : 한강 난지공원 내 잔디마당 특설 무대, 홍대 및 신촌 인근 라이브 클럽(부대행사)
- 주최/주관 : (사)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10. 13 ~ 10. 14) → 서면평가(2007. 11.) → 평가회의(2007. 11.)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5/10.0	12.0/15.0	4.0/5.0	24.5/30.0
현장평가		34.4/40.0	23.8/30.0	58.2/70.0
평가결과	8.5/10.0	46.4/55.0	27.8/35.0	82.7/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0/7.0
	2.중장기 계획여부	2.5/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1.0/2.0
C.사업성과	1.관객확보율	4.0/5.0
평가결과		24.5/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3/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3/5.0
	3.홍보의 적합성	3.7/5.0
	4.사업충실도	5.2/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3/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4/6.0
	7.관객 서비스	6.2/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5.8/7.0
	2.사회적 파급효과	4.0/6.0
	3.예술교류 기여도	4.0/5.0
	4.예술적 완성도	5.4/6.0
	5.관객 참여도	4.6/6.0
평가결과		58.2/70.0

## 4. 총평

### □ 사업계획

한강 난지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2007 대한민국 라이브뮤직페스티벌’은 라이

브 음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진 행사로 국고지원사업 목적에 원천적으로 부합했다고 평가된다. 전체적인 출연진의 면면들 그리고 그들의 연주력은 기획사에 의한 가공음악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요계 현실에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매체를 통한 음악, 음반을 통한 음악과는 분리되는 공연장 음악이 존재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이전 두해보다 그 의의에 충실했다. 이와 같은 축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순수 연주음악을 지향하는 젊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나아가 신인을 발굴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그들의 미래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만하며, 문화사업적 가치와 타당성이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행사가 돋보인 것은 유사 행사들에 비해 음향(사운드)에 있어서 일대 진전을 보였다는 점이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어떤 음악축제보다도 양질의 사운드를 선사했다고 생각된다. 라이브 콘서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운드다. 소리가 좋지 않다면 관객들이 일부러 공연장을 찾아와줄 리 없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객석을 중심으로 소리 축을 배치한 엔지니어링은 이번 이틀간 행사를 단연 돋보이게 해준 대목이었다. 아마도 주최 측은 여기에 행사의 중점을 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사운드 퀄리티에 덜 민감하다는 선입견이 있는 인디 밴드들의 페스티벌이 예상 밖으로 좋은 음향을 선사했을 때, 대중들에게 라이브 공연에서 사운드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3회가 되는 올해 행사는 관객 참여도가 낮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아쉬움을 남긴다. 이전 두 차례에 걸친 행사로도 확인된 바이지만 여전히 관객들은 많이 오지 않았다. 물론 행사 당일에 큰 행사(13일은 세계 불꽃놀이축제, 14일에는 억새풀 축제)가 열렸고, 추운 날씨에 진행되어 사람을 많이 빼앗긴 점도 있겠지만 아직도 라이브 음악과 인디 음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낮다는 것이 다시금 분명히 확인되었다.

따라서 1억에 가까운 국민세금을 사용한 행사에 관객이 적다는 점을 혈세 낭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관객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런 관객의 낮은 참여도가 초기의 난항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오래 계속될 사항인지를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에 관객이 적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홍대 일대의 인디 클럽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의 페스티벌이 “왜 난지도로 멀리 그것도 월드컵 공연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할 만큼 불편함을 주는 장소에서 열려야 했는지” 이 부분과 상당히 관련을 맺는 것 같다. 일단 공연장 가는 길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관객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참가를 주저한다. 앞으로도 수년 행사가 계속 된다면, 그리고 하나 씩 하나 씩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음악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좋은 비주류음악 페스티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 사업운영

국고지원사업으로 규모가 큰 편인 이번 행사는 진행의 경우 무리가 없어 보였다.

일단 공연장 세트와 조명 그리고 상기한 음향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밤을 수놓은 무대조명은 광채를 띠어 참여한 관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주었다. 행사를 지휘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관리와 경호에 최선을 다했다. 편의시설, 음료 및 식품을 구하는 것도 불편함이 없었고 화장실도 잘 갖춰진 편이었다. 물론 예상 관객을 수천 명을 두고 꾸민 것이라서 그랬을 테지만 이용시설은 나름대로 괜찮았다.

협찬한 곳을 알리는 구획도 행사에 방해됨이 없이 짜였고, 무대와 객석, 행로도 잘 분리되었다. 다만 행사장에 들어오지 않은 관객들도 무대가 나름대로 보였고 소리도 들을 수 있어 라이브 발전기금(5천원)을 낸 관객들과 확실히 차별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웠다. 첫 날 공연에서 입구를 개방시켜 공연이 ‘값싼 공연’일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나 둘째 날에는 몇몇 관객(티켓을 산)의 항의에 입구의 문을 닫은 것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서 나타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관람이 좀 더 용이하게 화장실을 공연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출연진은 록을 중심으로 하되 개성이 강한 다양한 팀들을 선별해 콘텐츠의 다양성을 맛보도록 했다. 일례로 13일에 출연한 블랙홀과 노브레인은 정통 메탈과 모던 록을 대표하는 팀으로서 서로 성격을 크게 달리 한다. 같은 무대에 섰어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록 성향의 밴드라도 엇비슷한 팀이 없어 관객들은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구성이 록에 치우친 느낌을 주는데 정신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장르를 확장해 장르의 쏠림현상을 개선해야 하며, 그래야 진정한 페스티벌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의 경우 라이브 밴드들의 공연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밴드들이 나와 음악을 들려주는 방식보다 어떠한 변화와 새로움 그리고 재미를 주는 방식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한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객을 더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서 차후에는 관객들이 좋아하는 외국의 음악성 있고 나름의 지분을 가진 인디 밴드가 한두 팀은 출연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뮤지션과 인디 밴드만으로는 집객 숫자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 사업성과

일관 되게 서술한 것과 같이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관객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는 점에서 행사의 일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물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의 관객들은 열띤 반응을 보였다. 공연을 마친 며칠 뒤 페스티벌에 참가한 밴드의 한 멤버는 “우리는 무대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덜 추웠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관객들은 정말 추워 걱정이 될 정도였다. 실제로 몇몇 팬들은 공연을 보고 나서 3일간 감기를 앓아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더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비록 관객 숫자는 적었지만 공연의 만족도와 행사의 질적 완성도는 결코 낮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프로그램은 변화를 주지 못했지만 공연 팀을 소개하는 해설은 매우 인상적이었

다. 특히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신인 밴드를 소개하는 것은 이해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돋보인 대목이었다. 신인을 발굴한다는 점이 행사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러한 친절한 접근방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

이날 드러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많은 관객을 유치하는 일이다. 행사 당일 주변에 더 큰 행사가 열렸다는 점은 공연날짜 선택에 매우 세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정표를 짤 때 기상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 예정 일에 집객에 영향을 줄 다른 큰 행사를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최 측에 아쉬운 것은 어떤 변명을 대도 홍보가 부족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많은 음악 팬들은 10월13일, 14일에 라이브 음악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매체 홍보가 충분치 않았음을 말해준다.

명분이 충분했고 공연준비와 진행은 평균점 이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적어 사업성 결과가 미흡하였다. 관객이 적었다는 것은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공연관객 인프라 형성에 전혀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획일적인 출연방식보다는 신세대가 좋아하는 극적 요소 등 재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집객에 도움을 줄 것임. 홍대 라이브 밴드들이 제한되어 있어 출연진에 변화가 없을 수 있으므로 획기적인 구성 안이 나와야 함.
- 홍보팀을 대폭 강화해야 함. 인쇄매체, 전파매체 그리고 인터넷 등 전방위 홍보에 나서야 함. 홍보팀은 최소 행사 3개월 전에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미리 세워 연말이나 연초에 공청회를 여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공연 날짜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함. 이를 위해 기획 팀 혹은 태스크 포스 팀이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가동되어야 함.
- 공연장의 위치를 바꿔야 함. 홍대 일대의 라이브 클럽 모임이 행사 주최 측이므로 당연히 행사는 예를 들면 홍익대 내부 운동장 같은 가까운 데에서 열리는 것이 좋음. 서틀버스를 타야 하는 난지공원은 관객들이 오기에 상당히 불편했음.
- 관객 숫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라이브 음악 발전에 도움이 될 실력과 해외 인디 밴드 출연을 고려해야 함. 국내 팬들은 오래 전부터 라이브 음악에 관한 한 외국 아티스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기타분야(다원)**

## **(1개 사업)**

# 2007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사업

## -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 평가결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
- 기간 : 2007년 5월 2일 ~ 5월 30일
- 장소 : 예술의 전당,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LIG아트홀, 로댕갤러리, 토탈미술관
- 주최 : Springwave Festival 조직위원회

### 2.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70%) + 서면평가(3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7. 5. 2 ~ 5. 30)→서면평가(2007.8.)→평가회의(2007. 11.)

### 3.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평가결과
서면평가	8.7/10.0	13.0/15.0	3.0/5.0	24.7/30.0
현장평가		35.9/40.0	26.3/30.0	62.2/70.0
평가결과	8.7/10.0	48.9/55.0	29.3/35.0	86.9/100.0

◦ 서면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A.사업계획	1.목적설계 적절성	6.2/7.0
	2.중장기 계획여부	2.5/3.0
B.사업운영	1.운영효율성	5.0/5.0
	2.행정절차 이행노력	2.0/3.0
	3.예산집행 적절성	2.0/3.0
	4.예산집행 투명성	2.0/2.0
	5.재원확보노력	2.0/2.0
C.사업성과	1.관객 확보율	3.0/5.0
평가결과		24.7/30.0

◦ 현장평가결과(나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점수
B.사업운영	1.운영조직의 안정성	6.3/7.0
	2.예산집행의 적절성	4.5/5.0
	3.홍보의 적합성	4.7/5.0
	4.사업충실도	5.4/6.0
	5.공연장소의 적절성	3.3/4.0
	6.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4/6.0
	7.관객 서비스	6.3/7.0
C.사업성과	1.목적달성도	6.1/7.0
	2.사회적 파급효과	5.4/6.0
	3.예술교류 기여도	4.2/5.0
	4.예술적 완성도	5.2/6.0
	5.관객 참여도	5.4/6.0
평가결과		62.2/70.0

## 4. 총평

### □ 사업계획

개별 예술 장르가 점차 해체되고 복합적 성격의 공연예술 형태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때문에 다원적 성향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을 적극 수용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행



사의 기획 의도는 참신했고 그 시기 또한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첫째는 ‘국제’ 다원예술축제의 정의에 있다. 여러 행사가 있었으나 상호교류라고 보기 어렵고 각각의 장르들이 삼투압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다원예술’에 관한 정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국내 젊은 작가 발굴’이라는 측면에 부합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다른 국제적 예술행사와의 차별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주최 측은 “현대무용, 연극, 미술,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현대예술 전 장르간의 상호교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예술의 창의적 가치를 부각, 예술적 중요성을 전파하는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역동적인 현대예술제”라고 사업의도를 사업계획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술의 중요성을 전파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고답적인 입장일 수 있으며, 그것은 다원예술의 정의로부터 훨씬 벗어나 있고 현대예술의 입장과도 어긋날 수 있다.

다만 미래지향적인 공연 예술 형태를 적극 수용하고 앞선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구체적 예술 페스티벌을 진행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킨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 □ 사업운영

전체적으로 보면 이 행사는 아직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 공연장에 가서는 행사 책임자를 만나서 설명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공연장에 있는 이들은 대개 자원봉사자들이었다. 공연 프로그램들은 각 장르의 교류라기보다는 장르 그 자체 공연에 머물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홍보가 미흡하였으며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소수 마니아층을 위한 행사가 되었다. 이러한 지적들은 앞으로 이 행사가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지속적인 공동 제작 및 연계, 신진작가 발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체 평가서와 공연 프로그램, 관련 홍보 인쇄물,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예산 운영 능력은 효율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아비뇽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먼저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간 의견차가 있었다. 해외 유명 예술가와의 공동제작으로 보면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행사의 취지와는 멀다고 판단되어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프로그램 내용은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이 참여한 덕분에 좋았다. 그러나 총 15개 작품에서 해외 작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내 작품은 매우 적어 이 행사가 국내 다원예술을 얼마나 수용했는지는 의문이다. 윌리엄 포사이드 작품은 그 유명세처럼 로댕갤러리에서 매우 삼엄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해외 유명한 작가의 명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김상화 작품은 지하 공간에 사운드, 빛, 입체 설치를 이용하여 공연 했는데 관객호응도도 높았

고 신선했다. 그리고 홍성민의 <오페라의 요령>은 다원 예술적 접근을 보여준 사례라고 판단한다. 토탈 미술관에서 열린 작품은 미술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충격적이었고 관람객도 매우 흥미로워했다. 어어부 프로젝트 역시 좋았으며 한 로우는 영상과 사운드의 결합을 보여주었으나 영상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외에서 찬사를 받았던 실험적인 아티스트들의 작업이 개인적 차원의 공연이 아니라 다원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대체적으로 공연 각각은 우수했다고 평가받지만, 융합 즉 서로 섞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하는 다원적 예술 축제의 큰 성격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이는 각 행사가 개별적 공연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로메오 카스텔루치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원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다. 단지 물리적으로 섞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넣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행사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엘리트적인 공간에서만 이루어졌다. 생활공간이나 마을 등 다원예술이 지향하는 장의 질서를 벗어나는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좀 더 도전적이고 아마추어리즘도 존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권위적 예술과 달리 다원예술은 각 장르가 평등하게 만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체롭 벨은 무대에서 지배적이었고 포사이드는 작품만 보냈을 뿐 오지 않았다. 다원의 매력이 장의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런 점들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 □ 사업성과

주최 측이 언급한, “자체제작 & 공동제작: 스프링웨이블은 기존의 페스티벌과 달리 국제적으로 지명도 높은 국외 페스티벌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Avignon Festival], 카이 씨어터[Kaaitheater])과 공동제작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신진작가들의 작업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적극적인 프로듀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제작과정을 통해 스프링웨이블 페스티벌은 국제적 차원의 다원예술축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현대예술의 선구자적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 부분이 과연 큰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역할이 현대예술의 선구자적 아이덴티티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의 표현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이 점은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이런 경우의 작품이 행사 기간 동안에 있었지만, 그것이 한국 현대예술의 위상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페스티벌의 계획자들은 예술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본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주최 측이 내건 “국제적 네트워크 :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다원예술기관 및 페스티벌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작가교류, 공연교류, 공동제작 그리고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공동 기획한다. 이러한 교류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자체제작이나 공동제작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로 재탄생될 것이며, 이러한 유통 과정의 반복은 결국 예술세계에 절대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에서도 발견된다. 예술 세계에 필요한 절대적 에너지란 무엇인지 이는 과장이며 오

독이라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주최 측이 밝힌 내용 가운데, 이런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내작가 발굴 : 스프링웨이블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대예술에 대한 이해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상황에 진보적인 실험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미래의 예술세계를 이끌어 나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국제적 수준의 전문화된 제작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 작가를 배출해 내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 젊은 국내 작가가 참여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반면 몇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다. 이 행사는 복합적 장르의 실험적 현대 공연예술을 선보인다는 취지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일반 대중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공연예술 형태들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 점은 행사의 취지와 본래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었다. 특히 미술과 무용, 음악, 연극 등이 다양한 형식과 자유로운 시선으로 접목되고 실험된 현장을 적극 소개해 보다 진보적 형태의 예술을 관객들에게 선보인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했다. 이러한 점들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적극적인 창작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일반 관객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었다. 다만 이 행사가 보다 인지도가 높아져 관객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첫 행사였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행사의 출범배경과 규모, 준비기간, 인력문제 등을 감안하면 매우 잘 치러진 행사라 생각된다.

## 5.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 재고가 필요함. 여러 행사가 있었지만, 상호 교류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각 장르의 독립적인 공연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보임. 다시 말해 여러 장르를 아우르고 있지만, 각각의 장르들이 삼투압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음.
- 행사 계획에 담겨져 있는 과장된 현대예술에 관한 이데올로기와 내세우기는 반드시 고쳐질 필요가 있음. 이는 주최 측이 다원예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첨단의 자본주의 예술의 경향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임. 한 뉴스의 제목처럼, “예술종합 선물세트”라는 것을 칭찬으로 여길 수는 없는 노릇임. 알려진 대가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신진을 소개하는 것도 이 행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몫임.
- 해외 작가들이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과 협업을 할 때, 협업의 파트너들이 도구적으로 결합해서 행사를 치르는 데에만 소진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할 것임.
- 해당 행사가 매년, 혹은 격년이라도 지속성을 유지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높은 수준을 유지, 해외 유명 페스티벌과 극장 등과의 공동 제작 및 연계 등을 적극 고려해 보다 효율적 행사 진행을 도모해야함. 또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공연 페스티벌과의 차별성을 유지해야겠으며, 이에 따른 독창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임.
- 첫 회 행사가 지나는 문제 즉 행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 행사내용에 대한 관

객들의 정보의 공유는 물론 행사의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이러한 진보적 형태의 공연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소수의 마니아층만이 몰리는 현상은 여러모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예술성과 대중성이 정비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관객들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
- 진행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성을 발휘해 효과적인 공연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많은 관객과 공연관람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연장이 여러 곳으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와 장기간의 행사기간의 조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